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년 2월
석사학위 논문

한국어와 중국어의 금기어 비교 연구

-죽음에 관한 금기어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왕 퇴

한국어와 중국어의 금기어 비교 연구

-죽음에 관한 금기어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Taboo Language between
Korean and Chinese.

2014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왕 뢰

한국어와 중국어의
금기어 비교 연구

-죽음에 관한 금기어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희숙

이 논문을 국어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왕 뢰

왕퇴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상원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금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희숙 (인)

2013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 연구 검토.....	2
1.3. 연구 내용 및 방법	7
2. 이론적 배경.....	10
2.1. 금기어.....	10
2.1.1. 금기어의 개념 및 유형.....	10
2.1.2. 금기어의 발생원인.....	18
2.1.3. 금기어와 완곡 표현.....	23
2.2. 수사법.....	24
2.2.1. 수사학.....	25
2.2.2. 수사법의 개념.....	25
2.2.3. 수사법의 종류.....	26
3. 죽음에 관한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 비교...29	
3.1. 금기어의 내용 비교.....	29
3.1.1. 사람에 관한 금기어.....	30

3.1.1.1. 부모에 관한 금기어.....	30
3.1.1.2. 부부에 관한 금기어.....	35
3.1.1.3. 자식에 관한 금기어.....	38
3.1.1.4. 여성에 관한 금기어.....	40
3.1.2. 명절에 관한 금기어.....	44
3.1.3. 초상(初喪) · 장례(葬禮) · 제사에 관한 금기어.....	46
3.1.3.1. 초상에 관한 금기어.....	46
3.1.3.2. 장례에 관한 금기어.....	50
3.1.3.3. 제사에 관한 금기어.....	52
3.1.4. 동식물에 관한 금기어.....	55
3.1.4.1. 동물에 관한 금기어.....	55
3.1.4.2. 식물에 관한 금기어.....	60
3.1.5. 의식주에 관한 금기어.....	63
3.1.5.1. 옷에 관한 금기어.....	63
3.1.5.2. 음식에 관한 금기어.....	64
3.1.5.3. 집에 관한 금기어.....	66
3.1.5.4. 기타 금기어.....	68
3.1.6. 기타 행위에 관한 금기어.....	70
3.2. 금기어의 문형 비교.....	72
3.3. 금기어의 수사법 비교.....	73
3.3.1. 한국어 금기어에서 쓰이는 수사법.....	74
3.3.2. 중국어 금기어에서 쓰이는 수사법.....	74

4. 요약 및 결론.....77

〈참고문헌〉80

〈부록〉83

<표 차례>

<표 1>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의 수.....	8
<표 2> 금기어의 정의.....	10
<표 3> 금기어의 유형.....	12
<표 4> 금기어의 유형.....	13
<표 5> 한국 수사법의 분류.....	26
<표 6> 중국 수사법의 분류.....	27
<표 7>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의 문형 비교.....	73

中文摘要

本論文對韓國語禁忌語和中國語禁忌語進行對照分析研究，並對其共同點和差異點進行了考察。進而幫助韓國語學習者和學中國語學習者，正確的理解禁忌語。論文的構成和內容如下。

第一章，對研究的對象，目標，方法進行說明。通過韓國學者以及中國學者對韓中禁忌語比較研究的考察發現，關於禁忌語的類型和禁忌語中修辭手法的比較研究却寥寥無幾。基於以上之分析確定了本論文的研究方向，即對韓國語禁忌語和中國語禁忌語的類型和修辭手法的運用，進行對照和研究分析。第二章，研究過程中所需要的理論背景與知識的介紹。首先，介紹了禁忌語的定義，類型，產生原因，以及禁忌語和委婉表現的關係然後對修辭法的定義和分類進行了整理和介紹。第三章，本論文以韓國語和中國語中與死亡有關的禁忌語為研究对象分析其內容上的共同點和差異點。以此為基礎從語言學的角度對韓中禁忌語的類型和修辭手法進行了研究。對於修辭手法的研究是從音韻，統辭，意味三個層面進行了比較，並指出共同點和差異點。第四章對本論文每個章節進行簡單的敘述說明，並對比較結果進行總結。

從古至今，韓中兩國經濟文化等相互影響，禁忌語也無例外。在全球交流越來越頻繁的今天，研究兩國文化差異和其引起的語言習慣差異，是具有非常重要的意義的。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Taboo Language between Korean and Chinese.

Wang Lei

Advisor: Prof. Gang Huisuk,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hinese and Korean tabooed word by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abooed word about death.

Up to now, existing studies on the tabooed word have already regular outcome. However, there was few studies on syntactic structure and rhetoric of tabooed word.

Therefore, this study summarized the concept and types of tabooed word and rhetoric and classified Korean and Chinese death related tabooed words into six categories, tabooed words related to human, tabooed words related to holiday, tabooed words related to mourning, funeral and ancestral rite, tabooed words related to animals and plants, tabooed words related to food, lodge and clothe and tabooed words related other behavior for analysis.

Next, based on the above content, similarity and differences on sentence

structure and rhetoric of tabooed words were reviewed.

Looking into the content of tabooed words, it is observed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but more similarities because both the country have been affected by buddhism and confucianism.

The sentence structure of Korean and Chinese tabooed words was similar. The tabooed words comprising of A and B type were appeared more in Korean tabooed words while C and D type existed more in Chinese tabooed words.

There are tabooed words using rhymes law and chiasmus in Chinese tabooed words. However, Korean tabooed words use repetition according to syntactic layers. It is because the Korean language, an affixing language, has restriction in the sentence structure of tabooed words and basic structure of Korean sentence.

The two countries have similar tabooed words as they have been mutually affecting by using the same chinese letter.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cause of political, economical and theological culture difference in modern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bserve sentence structure and rhetoric of both countries' tabooed words. This study would be of help for the learner who study both languages as the second language to learn language and culture.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은 언어를 통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언어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서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그치지 않는다. 언어는 그 언어가 생성된 문화적 배경이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회의 민족이나 집단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2언어를 습득할 때 단지 그 언어 자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생활양식, 언어습관, 심리 등도 알아야 한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이러한 문화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며 목표한 언어를 능숙하게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대화 상황에서 어떤 어휘나 언어 표현은 특유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언급하면 안 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언어를 바로 금기어(禁忌語)라고 한다. 허재영(2001:194)에서는 “금기란 ‘마음에 꺼리거나 피함’을 뜻하는데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특정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의도에서 형성된 말을 금기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금기어의 형식은 어휘적 금기어와 통사적 금기어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금기어는 통사적 표현으로 구성된다고 밝히고 있다.¹⁾

금기어는 특별한 언어 현상으로서 옛날부터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禮記·曲禮上』에는 “入境而問禁, 入國而問俗, 入門而問諱”²⁾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가기 전에 해당 국가

1) 허재영(2001:194)에서는 어휘적 금기어란 완곡어법에 의해 형성되며 어떤 대상이나 행위를 회피하여 꺼리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낱말이며 통사적 금기어는 문장형식으로 진술되며 가정적 조건문의 형식을 취하여 금기 대상과 방법을 표시한다고 서술하였다.

2) 다른 지역에 들어서면 그 지역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묻고, 다른 나라에 들어서면 그 나라의 풍속에 대하여 물으며, 다른 가문에 들어서면 그 가문에서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묻는다는 뜻.

나 지역의 금기 풍속을 알아 둘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화과정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으며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나 지역의 금기어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동일한 동아시아권에 속해 지리상으로 인접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끊임없이 교류를 해왔다. 또한 한·중 수교 이후 두 나라의 교류가 확대됨으로써 상호 간에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습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따라서 언어를 배울 때는 그 언어만 인식하는 것보다 그 언어의 문화적 배경과 함께 학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금기어 교육도 꼭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기어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며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서 그 사회의 풍속, 생활문화, 언어습관도 담겨 있다. 또한, 두 나라는 유교와 불교사상의 깊은 영향을 받아 예로부터 예의를 중시하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 예민하였으므로 죽음에 관한 금기어의 비교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금기어 가운데 특히 죽음에 관한 금기어를 비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동양 문화권에 속해 있는 두 나라는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비슷한 금기어도 많이 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점도 많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서 두 나라 통사적 금기어의 문형과 수사법 등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두 언어를 외국어로, 또는 제2언어로 공부하는 학습자들 모두에게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2. 선행연구 검토

한국어와 중국어에 나타난 금기어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각각의 언어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연구이었을 뿐 두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 연구

는 많지 않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죽음에 관한 금기어의 비교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에 관한 비교 연구는 嚴麗(2009), 李旻秦(2011), 진신(2012) 등 3편이 있다.³⁾ 嚴麗(2009)는 단순히 민속학적 차원에서 두 나라의 통사적 금기어만 분류한 데 비해, 李旻秦(2011)은 중국어 어휘적 금기어와 한국어 금기어를 대상으로 민속학적 관점에서 분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어학적 차원에서 금기어를 대체하는 방법도 살펴보았다. 또한, 진신(2012)은 어휘적 금기어를 대상으로 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상 비교 연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嚴麗(2009)는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에 관한 첫 번째 비교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쓰이는 금기어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⁴⁾ 구체적으로는 두 나라 금기어에 나타난 민간 사고 가운데 종교적 사고, 남존여비 사고, 보건·위생적 사고 등을 고찰하고 한중 금기어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분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를 의미에 따라 분류하고 비율도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교적 사고의 면에서는 총과 효를 강조하는 유교 이념과 두 나라 사람의 의식구조를 결합하여 전통을 중시하는 형태가 보이는데 남존여비 사고의 강한 영향을 받아 여성의 존재가치를 남성과의 불평등 관계로 격하시키는 의식도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보건 위생 사고의 면에서 금기어는 질병 및 고통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의식을 표출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기어의 합리성과 비합리성⁵⁾에 대해서 합리적 금기어는 산

3) 이밖에 죽음에 관한 한·일 금기어 연구도 한 편이 있는데 윤학중(2011)이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일 금기어 중에 죽음에 관련된 것을 대상으로 두 나라 금기어의 금기 대상과 금기어에서 자주 출현하는 특정 어휘 및 수사(修辭)를 살펴보고 있다. 두 나라는 모두 효와 예 또한 장례식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으므로 인간관계에 관련된 금기 대상이 많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금기어의 형태에 대해서는 한국어 통사적 금기어에서 대상과 방법이 나타나 있는 기원적 금기어가 더 많이 있는 반면 일본어의 금기어에서 윤리성을 강조하여 부차적 금기어가 더 많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수사의 종류를 살펴보고 자주 나온 품사를 검토하여 일본의 금기어에서 명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금기어는 동사적 표현이 더 많이 적용되고 있고 두 나라의 금기어 모두 형용사적 표현이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았다고 제시하였다.

4) 김성배(1962a, b)에서 나온 한국 금기어 560개와 任聘(2004)에서 나온 중국 금기어 834개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5) 嚴麗(2009:16)에서는 금기어들은 당시로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 오랜 생

속과 위생관념, 또는 예절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외의 금기어는 대부분 비합리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중 두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금기어는 합리적 것과 비합리적 것이 다 존재하므로 비합리적인 금기어는 정확히 인식하고 극복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금기어는 지키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 수록된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를 의미적으로 분류해서 비율을 통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금기어의 가운데 음식에 관련된 금기어가 20% 정도가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어의 경우에는 부정함과 관련된 금기어가 28%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李昶秦(2011)에서는 한·중 두 나라의 금기 현상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면 중국어 금기어를 호칭에 관한 것, 재앙에 관한 것, 나이와 띠에 관한 것, 재산에 관한 것, 모독(冒瀆)에 관한 것, 직업에 관한 것 등 6가지로 분류하였으며⁶⁾ 한국어 금기어를 단어로 이루어진 금기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진 금기어로 구별한 후에 다시 세분하였다.⁷⁾ 또한, 두 나라에서 사용하는 금기어를 대체하는 방법은 문자적 변형과 음운론적 변형을 나누어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문자적 변형에 대한 중국어는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모양을 변화하기를 통한 필획생략법(缺筆法)과 나눠쓰기법(拆字法) 등의 2가지 특별한 방법이 있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⁸⁾ 이뿐만 아니라 호칭에서 중국어는 비워쓰기법(空字法)이 있어 고대에서

활경험을 통해 얻어진 경험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합리성이라고 하고 있으며, 도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의 통제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비합리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6) 중국의 호칭에 관한 금기어는 주로 돌아가신 사람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 왕의 명휘를 금기하는 것, 이름을 지을 때 회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당나라 시기 왕의 이름이 이세민(李世民)이기 때문에 ‘世’와 ‘民’을 말하지 않고 다른 글자로 바꿔 말한다. 또한 자식의 이름이 지을 때 조상의 이름이나 왕의 명휘에서 나타나는 글자를 피하는 것이다. 재앙에 관한 금기어는 주로 죽음에 관한 어휘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死’라는 말은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말로 완곡하게 표현한다. 중국은 ‘73세’, ‘84세’, ‘100세’는 일생 중에 가장 위험한 나이라서 이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나이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한 살 더 많게 말하거나 더 적게 말한다.

7) 李昶秦(2011)에서는 한국 금기어 중에 단어로 이루어진 금기어는 다시 호칭 금기어, 길흉(吉凶) 금기어, 모독(冒瀆) 금기어 등으로 분류하고 문장으로 이루어진 금기어는 자연현상에 관한 금기어, 원시신앙에 관한 금기어, 귀신에 관한 금기어, 인간에 관한 금기어, 운명에 관한 금기어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름을 직접 쓰는 것을 기피하는데, 이름 중의 한 글자를 ‘口’으로 썼다. 예를 들어 ‘王世充’이 ‘王口充’으로 씌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금기하는 글자를 대체하는 것이 비워쓰기법이다. 한국어의 경우는 주로 음에 대한 변화, 추가, 삭제 등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중국어의 경우는 해음(諧音), 발음변환법, 반절읽기법, 어종 대체 등 4가지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진신(2012)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에 대한 변형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연구 대상을 죽음, 질병과 신체적 결함, 호칭, 배설, 성, 성차별, 신체적 특징과 노년 등 7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한·중 금기어의 ‘형태적 변형 양상’과 ‘의미적 변형 양상’을 비교하여 한·중 금기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태적 변형 양상’은 다시 음운적 변형과 문자적 변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음운적 변형에 대해 한국어의 경우는 주로 음에 대한 변화, 추가, 삭제 등의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중국어의 경우는 해음(諧音), 발음 변환법, 반절 읽기법, 어종 대체 등 4가지가⁹⁾ 있다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문자적 변형 양상에서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다음에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외래어를 대체하는 경우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숫자 4와 한자어 ‘四’는 ‘죽음’의 의미로 대체할 수 있다. 숫자 13은 한국어에서만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둘째,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성’과 ‘성기 명칭’, ‘배설’에 대하여 대명사로 대체할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 ‘성기 명칭’

8) 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글자의 마지막 한 획을 생략하여 쓰는 필획생략법(缺筆法)이다. 또 한 한자의 형체를 사용하여 의미를 나눌 수 있는 특징을 고려한 것으로 한 글자의 원래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몇 개의 글자로 나누는 나뉘쓰기법(拆字法)이다.

9) 진신(2012:44-46)에서는 이 네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우선 해음은 중국어의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이며 『현대한어규범사전(現代漢語規範詞典)』에서는 해음을 글자의 독음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例. 分裂(fen li 배를 나누다.)→(分離fen li 헤어지다)]. 다음으로 반음 변환법은 발음의 일부, 즉 성모나 운모 중의 하나를 다른 성모나 운모로 바꾸어 읽는 것을 가리키며 반절읽기법은 음절을 성모와 운모로 나누어서 두 개의 한자로 표기한 다른 한 글자의 음을 읽는 방법이라고 논하고 있다.[例. ‘仇(chou)’는 증오란 뜻이 있는데, 성씨 ‘仇’가 ‘逑(qiu)’로 발음 한다. 또한 ‘仇’를 ‘喊(qi)’ ‘咻(xiu)’의 성모 ‘q’와 의 운모 ‘iu’로 나누어서 ‘qi`xiu’로 발음한 다.] 마지막으로 어종 대체는 다른 형식으로 어휘의 어종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이 차용법의 원리와 비슷하고 외래어를 음역하는 방법으로 금기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예: ‘AIDS(性免役綜合症)’을 음역한‘愛滋病’(ai`zi`bing)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자신’ 과 ‘뭐’ 로 대체하고 중국어에서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셋째, 한국어와 중국어는 아라비아 숫자와 영어 알파벳으로 성과 성기 명칭을 대체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아라비아 숫자와 로마자 알파벳을 한국어는 한글로 대체하고 중국어는 한자로 대체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넷째, 성과 성기 명칭 등 창피한 것에 대해 중국어는 단순히 기호로 대체하고 한국어는 기호와 한자어를 붙여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미적 변형 양상에서는 중국어에서는 깊이나 심한 정도를 강조하기 위해 형용사와 동사 뒤에 죽다(死了)를 붙이고 한국어에서는 ‘동사+아/어 죽겠다’ 는 문법적 방법으로 표현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금기어에 관한 연구는 금기어의 개념, 기원, 내용, 사회 영향 등 분야에서 깊고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 대상이나 방법의 면에서 일정한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신(2012)은 한·중 금기어 가운데 어휘적 금기어를 통해서 두 나라 금기어의 변형 양상을 비교하였으며, 李旻秦(2011)은 중국어가 어휘적 금기어만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두 나라 금기어의 대체 방법을 비교하였다. 또한 嚴麗(2009)는 주로 한·중 금기어 중에 통사적 금기어를 대상으로 단순히 민속학적 관점에서 합리성(合理性)과 비합리성(不合理性)¹⁰⁾을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는 대부분 꺼림의 대상에 따라서 분류만 하고 있거나 금기어를 대체하는 방법을 분석하고 있다. 통사적 금기어의 문형¹¹⁾과 수사법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한·중 두 나라는 유교와 불교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예로부터 예의를 중시하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 예민하였으므로 죽음에 관한 금기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죽음에 관련된 금기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죽음에 관한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의 문형과 수사법에 대해 분석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고 한다.

10) 각주 4)를 참고.

11) 허재영(2001)에서는 통사적 금기어는 문장 형식으로 진술되며, 가정적 조건문의 형식을 취하여 금기 대상과 방법을 표시한다고 제시하였으며 문장의 갈래는 흘문장, 겹문장(안은문, 이은문)으로 설정할 수 있다.

1.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 가운데 죽음에 관한 금기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기는 사회가 적극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어떠한 행위나 사물을 가리키며, 그 의미는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로까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주영, 2008:5). 금기어에 관한 기존 연구는 적지 않지만 통사적 금기어의 문형과 수사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 죽음에 관한 금기어를 중심으로 통사적 금기어(아래에서 ‘죽음에 관한 통사적 금기어’는 ‘금기어’라고 한다.)의 문형과 수사법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한국어와 중국어의 금기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¹²⁾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그 범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나라의 언어 비교는 동일한 층위에서 진행해야 하는 원칙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중국어 가운데 꺼리는 행동을 못하게 하는 말들을 금기어의 범위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금기어의 개념을 정리 한 후 금기어의 발생 원인을 제시하고 금기어와 완곡어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그 외에 한·중 수사법의 개념과 유형도 제시하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금기어를 살펴본 후 본 연구의 범주를 죽음에 관한 금기어로 규정하여 김성배(1962a, b)에서 뽑은 한국어 금기어 160개와 任驎(2004)에서 뽑은 중국어 금기어 132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우선 의미적으로 <표 1> 과 같이 분류하여 비교 분석한다.

12) 중국어 금기어는 기피하는 사물이나 영역에 대해 언급하기가 꺼리는 어휘를 가리키며 한국어 금기어는 기피하는 경계(警戒)와 주의를 시키고, 꺼리는 행동을 못하게 하는 말들을 가리킨다(조영구 2006: 16).

〈표 1〉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의 수

분류	한 국		중 국	
	수	비율	수	비율
사람에 관한 금기어	59	36.9	36	27.3
명절에 관한 금기어	4	2.5	8	6
초상·장례·제사에 관한 금기어	24	15	39	29.5
동식물에 관한 금기어	37	23	18	13.7
의식주에 관한 금기어	26	16.2	23	17.4
기타 행동에 관한 금기어	10	6.4	8	6.1
총 금기어 수	160	100	132	100

〈표 1〉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의미적으로 사람과 관련된 금기어, 명절과 관련된 금기어, 초상·장례·제사와 관련된 금기어, 동식물과 관련된 금기어, 의식주와 관련된 금기어, 기타 행동과 관련된 금기어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해서 한국어와 중국어 죽음에 관한 금기어의 수를 계량화하였다. 그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어 금기어는 ‘사람에 관한 것> 동식물에 관한 것> 의식주에 관한 것> 초상·장례·제사에 관한 것> 기타 행동에 관한 것> 명절에 관한 것’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어 금기어는 초상 장례 제사에 관한 것> 사람에 관한 것> 의식주에 관한 것> 동식물에 관한 것> 기타 행동에 관한 것=명절에 관한 것’ 순임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고 한다.

금기어는 선인의 문화, 즉 금기가 발생한 시기의 시대상과 제도, 생활습관, 사고방식 등이 담겨 있으므로 금기어를 통해 선인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금기어는 각 나라에서만 쓰이고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

기 어려운 언어 현상이므로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에 관한 비교 분석은 문화 교류의 방법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금기어

금기란 마음에 꺼리거나 피함을 의미하며 ‘터부(taboo)’¹³⁾라고도 일컫는다. ‘터부’라는 용어는 원래 특정한 물건을 추장, 국왕, 승려와 같이 허락된 특정 계급만이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특정한 용도에만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이한 사회 현상이었다. 그러나 점점 일반화되어 존경받는 신적인 사물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멀리하는 천한 물건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 등으로 나타났다.

2.1.1 금기어의 개념 및 유형

금기어는 중요한 문화요소로서 오래 전부터 수많은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바, 금기어의 개념 및 범위는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금기어의 개념과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금기어의 정의를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금기어의 정의

구분	연구	정의
언어 학적 관점	文孝根 (1962)	使用을 忌避하는 言語나 文字.
	심재기 (1970)	禁忌語라는 용어가 되어 왔으나 ‘語’라고 할 때에, 單語라는 뜻이 強하게 느껴지므로 禁忌語는 禁忌된 單語의

13) 금기(Tabu)라는 말은 원래 폴리네시아 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영어로는 타부(taboo)라고 한다. 이것은 건드릴 수 없는(unantastbar), 침해할 수 없는(unverletzlich), 성스러운(heilig) 것을 뜻하고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종교적, 정치적, 성적인 이유에서 대개 금지된(verboten), 즉 말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etwas, wovon man nicht sprechen darf)을 의미한다(김중수 2000:252).

민속학적 관점		뜻으로 한다.
	劉昌惇 (1980)	도덕적으로나 신앙(迷信)적으로 꺼리는 말.
	박영준 (2004)	금기어는 한 언어 공동체에서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언어의 표현.
	金聖培 (1962a)	경계(警戒)와 주의(注意)를 주고, 금지(禁止)와 기의(忌義)를 일으켜 어떠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말.
	秦聖麒 (1973)	금기어(禁忌語)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금하고 꺼리는 말.
	허재영 (2001)	‘마음에 꺼리거나 피함’을 뜻하는데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특정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의도에서 형성된 말을 금기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다른 관용표현과 마찬가지로 금기어는 어휘 자체로 존재하는 경우와 통사적 구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기담’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허재영 (2002)	금기어는 ‘꺼려하고 싫어하는 대상 또는 행위’를 표현하는 말	

<표 2>를 살펴보면 금기어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文孝根(1962), 沈在箕(1970), 劉昌惇(1980), 박영준(2004)에서 금기어는 언어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단어 형식의 구조로 된 일반 어휘 중에서 두려움, 불쾌감, 공포 등의 심리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언중의 특정 행동에 대한 금기나 특정 행동을 금기하는 언어 표현(‘금기담’¹⁴⁾, ‘통

14) 沈在箕(1970:9, 각주 9)에서는 언어학적 차원에서 ‘금기어’와 구별하여 ‘금기담’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금기어라는 용어가 통용되어 왔으나 ‘어(語)’라고 할 때는 단어라는 뜻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금기어는 ‘금기된 단어’의 뜻으로, 금기담은 금기의 대상과 행위를 지시하는 관용문구의 뜻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허재영(2011:194)에서는 금기어의 형식은 어휘적

사적 금기어’)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둘째, 金聖培(1962a), 秦聖麒(1973), 허재영(2001), 허재영(2002)에서는 민속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금기어는 금기하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기하는 행동을 표현해 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민속학자들은 금기어를 어휘적 금기어와 통사적 금기어로 분류해서 분석하였다.

금기어는 각각의 학자들이 그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금기어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우선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금기어를 사용 환경에 따라 일반 금기어와 상황 금기어로 나누며, 사용 언중에 따라 전체 금기어와 일부 금기어로 나누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금기어 유형(박영준 2008:84)

기준	구분	영역
사용 환경	일반 금기어	모든 상황에서 금기어로 되는 경우 (성, 질병, 생리작용에 관련된 어휘)
	상황 금기어	특정 상황에서 일반어가 금기어로 되는 경우
사용 언중	전체 금기어	전체 언중에 의해서 금기어로 되는 경우 (성, 질병, 생리작용에 관련된 어휘)
	일부 금기어	일부 언중에 의해서 일반어가 금기어로 되는 경우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 금기어와 전체 금기어는 모든 상황에서, 전체 언중에 의해 금기어가 되는 것이며 주로 성과 관련된 어휘, 생리작용에 관련된 어휘, 질병에 관련된 어휘 등이 있다. 상황 금기어나 일부 금기어는 일반 어휘지만, 적용 대상이나 특정 장소에 의해서 금기어로 바뀌는 경우를 가리킨

금기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 금기어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금기어는 ‘금기담’ 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예를 들어 호랑이는 생명을 해치는 동물이라서 산속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호랑이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¹⁵⁾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 어휘인 ‘호랑이’가 상황 금기어가 되는 것이다. 일부 연중 금기어는 일부 연중에 의해서 금기어로 되는 경우로 예를 들어 일반어 ‘숙주’가 특정한 성씨인 신(申)씨에게는 금기어가 되는 것이 그 것이다(박영준, 2004: 84).¹⁶⁾

금기어의 유형에 대한 또 다른 연구 성과로는 Ullmann(1962)을 들 수 있다. Ullmann(1962)에서는 의미론적 입장에서 금기어를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¹⁷⁾

〈표 4〉 금기어 세 가지 유형

구분	영역
공포나 외경에 의한 금기어	신, 죽은 사람, 악령의 이름
우아한 표현을 위한 금기어	질병, 죽음, 장례, 육체 및 정신적인 결핍 등
예의에 의거한 금기어	성, 신체 부위, 욕

〈표 4〉에서 제시한 금기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심재

15) 文孝根(1962:18, 19)에서는 “산중에서 맹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는다. 입에 담거나, 듣게 되면 정말 그런 짐승이 나타난다. 함흥 등지에서는 산에서 ‘범’을 만나면 ‘손님’이라고 불어야 잡아먹히지 않다”고 하였다.

16) 조선의 학자이자 정치가인 신숙주가 단종을 배신하고 수양대군(세조)편에 서게 되면서 이에 실망한 백성들이 녹두나물을 숙주나물로 부르게 되는데 이는 이용기의 『조선 무쌍 요리제법』을 보면 당시 백성들이 녹두나물을 만두 안에 넣기 전에 미리 짓이기는데, 신숙주를 이 나물 찢듯 하자고 해서 숙주나물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신(申)씨들에게는 신숙주가 조상이기에 이 단어가 금기시 된다는 내용이다.

17) Ullmann(1962:205)에서는 언어 금기를 심리학적 요인에 따라 세 가지, 즉 두려움(fear), 고상함(delicacy), 예의범절(decency and propriety)로 나눈 바 있다.

기, 1970:8).

첫째, 공포 또는 외경의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이런 말들은 죽은 사람이나 악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서 발견된다. 이는 동식물의 이름을 부르거나 함부로 대하는 태도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이것이 심화되면 종교적인 행위로 바뀌기도 한다.

둘째는 직접 호칭하기를 꺼려 우아한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금기어이다. 질병이나 죽음,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부도덕 따위를 표현할 때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이른바 완곡어법이라 부르는 이러한 형식의 언어는 낱말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예: 호랑이 → 산신령, 무속언어의 신 → 대감 등). 완곡어법이 생겨나는 심리는 더욱 다양하여 더럽거나 추한 것 대신 색채나 형태가 유사한 다른 낱말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는 예절 바르고 정중한 표현을 하기 위해 성기 따위의 신체 부위나 맹세의 말(함부로 언약할 수 없다는 뜻)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을 든다. 이 경우도 완곡어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상과 같은 금기어의 개념을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금기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자 한다.

- (1) 금기어란 기피하는 경계(警戒)와 주의를 시키고, 금지와 기휘를 일으켜 어떠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말들을 가리키며 금기어의 형식은 어휘적 금기어와 통사적 금기어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민속학자들은 금기어의 구조에 따라 금기어를 어휘적 금기어와 통사적 금기어로 나누었으며, 어휘적 금기어는 한 낱말이 금기를 이루는 경우이고 통사적 금기어는 문장 형식으로 이루는 경우이다. 통사적 금기어는 주로 두 개의 문장이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형식 논리학(形式 論理學)에서 말하는 가언판단(假言判斷)의 문형으로 표현한다. 앞에는 종속절(從屬節)이고 뒤

에는 본절(本節)이다. 기본적 문형은 ‘A가 B하면 C가 D한다.’ 와 같이 공식화(公式化)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간단한 문장이라도 반드시 기본 문형과 같은 문장으로 환원(還元)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색시 방에는 촛불을 켜야 한다.’ 라는 금기어가 내포한 의미를 분석하려면 ‘(누구든지) 새색시 방에는 촛불을 켜지 않으면 (혼인생활이) 불길하다.’ 로 바꿀 수 있다. 또한 ‘말띠 여자는 불행하다.’ 라는 금기어는 단문인데 ‘여자가 말띠에 태어나면 그 여자는 불행하게 된다.’ 와 같이 바꿀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사적 금기어는 다음의 네 가지 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통사적 금기어의 4가지 문형(심재기, 1970:10).

ㄱ. A형: B하면 D한다.

例. 말띠에 태어나면 불행하다.

ㄴ. B형: A가 B하면 D한다.

例. 여자가 말띠에 태어나면 불행하다.

ㄷ. C형: B하면 C가 D한다.

例. 말띠에 태어나면 여자가 불행하다.

ㄹ. D형: A가 B하면 C가 D한다. (기본 문형)

例. 여자가 말띠에 태어나면 그 여자는 불행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기어는 각각의 학자들이 그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개념과 유형이 달라 그 범주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금기어는 형식적, 의미적 면에서 다른 용언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고에서 금기어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금기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허재영(2002:258~260)에서는 금기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로는 전조어(前兆語)이다.¹⁸⁾

(3)ㄱ. 꿩이 몹시 울면 지진이 일어난다.

ㄴ. 까마귀가 울고 가면 사람이 죽는다.

ㄷ. 겨울에 개나리꽃이 피면 나라에 큰 혼란이 일어난다.

위의 말들은 자연 현상의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구실을 하는 말들이다. 이와 같은 전조어는 인간의 의지와 관련 없이 자연 현상을 일컫는 말이므로 금기어라 보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3ㄱ)같은 특정 자연 현상이 일어나면 해로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으로 확대 해석한다면 금기어 범주에서 다를 수도 있다.¹⁹⁾ 이에 따라 간혹 금기어와 흉조어(凶兆語) 사이에 명확한 한계를 찾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용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기어나 전조어를 포함하여 ‘속신어(俗信語)’ 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다. 속신어는 말 그대로 민간에서 믿고 있는 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속신어는 금기어를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그러나 속신어가 반드시 금기어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속신어는 이미 사회성을 얻은 언어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금기어는 발생 과정상 사회성을 얻기 이전의 언어도 포함될 수 있다. 하나의 보기로 학교 사회에서 교사들은 월요일 아침 첫 시간 수업 때 분필이 부러지면 그날은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다. 곧 ‘분필이 부러지면 체벌하지 말라’ 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광범위하게 퍼진 말은 아니다. 이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말로 금기어 형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속신어로 보기는 힘들다.

18) 전조어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이라고 예언하는 말이다.

19) 본고에서는 ‘까마귀가 울면 그 동네에 초상이 난다.’, ‘부엉이가 울면 초상난다.’, ‘바닷가에 서 멧새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 ‘貓頭鷹夜叫, 預示死人.(부엉이가 밤에 울면 사람이 죽는다.)’, ‘竹子開花, 家破人亡. (대나무 꽃이 피면 집안 식구들이 다 죽는다.)’ 등 같은 흉조어는 금기어 범주에서 다루고자 한다.

둘째, 당연한 일을 금기어로 혼동하는 경우이다. 건강이나 예의에 관한 문장에서 금기어 형식처럼 나타나고 있지만 지극히 당연한 일을 표시하는 것을 금기어로 본다면 일상 언어에서 금기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말들은 금기어라고 보기가 힘들다.

(4)ㄱ. 환절기가 되면 조심해야 한다.

ㄴ. 해바라기 씨를 너무 먹으면 배탈이 난다.

ㄷ. 문지방에 앉으면 종기 난다.

셋째, 꿈에 관한 표현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심재기 1970:12).

(5)ㄱ. 꿈에 어린애를 안으면 재수 없다.

ㄴ. 꿈에 흰 옷을 입으면 근심이 생긴다.

ㄷ. 꿈에 돼지를 집안으로 들이면 재수가 없다.

위의 예들은 다 꿈풀이로 볼 수 있다. 꿈풀이는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5ㄱ-ㄴ)처럼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꿈이 일정한 일의 발생을 예언하는 전조어 구실을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꿈속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이다. 금기어 범주를 설정할 경우에는 위의 말들에 한정하여 금기어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 ‘꿈에’라는 표현을 제거한다면 일상적인 금기어 유형과 비슷한 모습을 갖는다. 이와 같은 진술을 종합해 보면 금기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6)ㄱ. 금기어는 어떤 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꺼림을 표하는 말이다.(금기성)

ㄴ. 금기어는 속신어와는 달리 금기 대상이 존재한다.(금기 대상성)

ㄷ. 금기의 표현 방법이 존재한다.(표현성)

ㄹ. 언어사회에 지속적으로 작용한다.(지속성)

- ㄹ. 금기어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의 공통된 심리를 전제로 한다.(사회 심리 공유성)

2.1.2. 금기어의 발생원인

허재영(2001:203~213)에서는 금기어의 발생 요인에는 크게 심리적 요인과 언어 및 사회적 요인 두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1)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은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금기어가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는 흔히 정서로 표출된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정서는 인지, 동기와 함께 마음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로 불린다.

<정서적 요인>

(7)ㄱ. 공포(두려움)의 정서와 관련된 것.

ㄴ. 쾌-불쾌의 정서와 관련된 것.

공포의 정서는 “갑자기 외부의 위험한 사태나 천재지변을 만났을 때, 그 대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혹은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생기는 불쾌한 심리 상태”로서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대상이 공포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최승희·김수옥 1995). 이러한 요인이 작용하여 생성되는 금기어는 대체로 통사적 금기어로 존재한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8)ㄱ. 두꺼비를 잡으면 홍수가 난다.
 ㄴ. 어린 아기가 투레하면 큰 비가 온다.
 ㄷ. 밤중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

(8ㄱ-ㄷ)과 같이 공포가 작용하는 금기어는 가정적 조건절에 따라 인간이 느끼는 두려운 일들이 종속절에 표현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 금기하는 내용은 가정적 조건절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적 조건절에는 꺼리는 행위나 대상이 표현되고, 종속절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길한 일이 제시된다. 다시 말하면 공포와 관련된 금기어는 금기해야 할 행위 및 대상이 드러나며 이를 어겼을 때 당하게 될 일이 명시되는 형식을 취한다.

쾌-불쾌의 정서는 최승희·김수옥(1995)에서 풀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쾌정서’는 일반적으로 행복, 쾌락, 기쁨, 희열과 같은 정서로 본능적이며,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에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반면 이러한 만족을 느낄 수 없을 때는 불쾌의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금기어는 어휘적 금기어를 이루며 완곡어법에 의해 표현된다.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9)ㄱ. 망나니: 집안에 노래기가 많이 끼었을 때 부르는 말.
 ㄴ. 금덩이: 똥을 일컫는 말.

〈인지적 요인〉

- (10)ㄱ. 연상의 적용과 관련된 것.
 ㄴ. 유추의 적용과 관련된 것.

인지의 개념 속에는 지적 과정, 지각, 기억, 지능, 학습, 연상 능력, 문제해결 능력, 추리 능력 등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일련의 과정들

이 포함된다(최승희·김수옥 1995). 그중에 유사성을 갖는 추리 능력과 연상 능력은 인간의 인지과정상 가장 중요한 책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상과 유추의²⁰⁾ 적용과 관련된 것은 금기어가 산생하는 중요한 인지적 요인이 되었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사물의 모양이나 속성에 따른 유추

- ㄱ. 대나무 막대로 맞으면 말라 죽는다.
- ㄴ.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면 방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
- ㄷ. 변소에 3번 빠지면 그 사람이 죽는다.

(12) 음의 유사성에 따른 연상

- ㄱ. 녁 사 자는 죽을 사(死)와 음이 같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다.
- ㄴ. 치자가 든 이름의 물고기는 제사에 쓰지 않는다.

위의 예들은 연상과 유추의 적용과 관련된 금기어이다. 이런 금기어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에도 연상에 따라 관련성이 부여됨으로써 생성된다. 곧 유추적 추론은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금기어에서는 가정적 조건절에서 관계성이 없는 두 문장이 연합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2) 언어 및 사회적 요인

언어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금기어가 생겨나기도 하는데, 이는 언어 공동체의 말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생활 규범, 또는 이중 언어에서의 두 어휘 체계의 음운 유사성에서 발생하는 특정 어휘 회피 현상을 들 수 있다.

첫째, 언어에 대한 인식이다. 언어는 흔히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의 체계로 정

20) 허재영(2011:209)에서 유추는 일반적 원리에서 벗어나 언어층위가 원리를 닮아가는 현상으로, 건인되는 쪽과 일반적 원리 사이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다.

의되지만, 언어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한 입장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논의와는 별도로 개별 언어공동체마다 언어의 본질을 인식하는 양상은 달리 나타난다. 이러한 언어 인식에 따라 개별 언어공동체마다 서로 다른 언어문화를 갖게 되는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구술 중심의 문화를 이루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문자 중심의 문화를 이루기도 한다. 이와 같이 언어 표현과 인간 행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식은 문화적 풍토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13) 언어에 대한 태도

ㄱ. 언어 표현 경계

- . 송장 앞에서 ‘냄새가 난다’ 고 말하면 냄새가 더 난다.
- . 어린아이에게 잘생겼다고 하면 반대로 된다.

ㄴ. 이름의 정체성 문제

- . 이름이 너무 거창하면 못 산다.
- . 조상의 이름을 자식에게 붙이면 자식의 앞날이 편안하지 않다.

이와 같은 금기어는 한 언어공동체의 언어에 대한 의식을 반영하는 금기어이다. (13ㄱ)에 나타나듯이, 한국인들 전통적으로 말을 조심할 것을 강조했는데, 그 까닭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언어로 표현된 것은 그것이 부정적일수록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생활 및 규범이다. 금기어 가운데 상당수는 인간의 사회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러한 금기어는 자연발생적 성격을 지니는 정서적 차원에서 금기어나 인지적 차원의 금기어와 달리 한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생관이나 윤리를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문화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금기어라 할 수 있다.²¹⁾

21) 심재기(1983)에서는 금기 내용을 토대로 기원적 금기담과 부차적 금기담을 구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부차적 금기어로 '복, 운명, 가문'과 같은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와 관련된 금기어, '신체 활

이와 같은 금기어는 금기의 방법을 제시하여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금기어는 의미상 뜻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ㄱ. 원만한 가정생활

- . 시아버지 앞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나쁘다.
- . 부모 앞에서 방귀를 끼면 밖에 나가 창피를 당한다.

ㄴ. 경로사상

- . 어른의 모자를 써 보면 키가 자라지 않는다.
- . 어른에게 드릴 물을 자기가 먼저 마시면 입이 그릇에 붙는다.

ㄷ. 이웃과의 관계

- . 밤에 빨래 방망이질을 하면 동네 늙은이가 죽는다.
- . 동네에 초상이 났을 때 머리를 감으면 해롭다.

(14ㄱ-ㄷ)에 나타나는 금기어는 가정적 조건절에 생활 규범이 제시되어 있다. 곧 가정에서의 원만한 생활을 꾀하도록 유도하거나, 웃어른을 공경하고, 이웃과 원만한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금지해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이중 언어 상황의 금기어다. 예를 들어 Oklahoma의 크리크 인디언의 경우, fakky(soil), apiswa(meat), appissi(fat)와 같은 단어를 회피하고 영어 단어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기어는 기존의 언어(모국어라 할지라도) 체계에 존재하는 언어가 새로 받아들인 언어 체계에 존재하는 금기어와 발음이 유사할 경우 기존 언어의 어휘를 기피하는 현상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동, 여성 활동, 일상생활' 등 생활규범과 관련된 금기어가 있다.

2.1.3. 금기어와 완곡 표현

언어 속의 금기 현상은 완곡한 언어의 생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완곡한 표현을 통하여 쌍방이 모두 알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피하는 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금기된 이름이나 동작을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할 때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단어로 대신하거나 완곡하게 사용하는 어휘 표현을 일컬어 완곡 표현이라고 한다. 이렇게 듣기 좋은 대체언어 혹은 암시성 단어가 완곡 표현인 것이다(김주영 2008: 17). 왕소단(2010: 11~13)에 따르면, “금기어와 완곡어는 동전의 양면처럼 얼굴이 다르지만 가치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는 완곡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서로 간의 불편함이나 관계 악화를 줄일 수 있고 심리적인 위안을 얻기 때문이다.²²⁾

금기어(禁忌語)와 완곡 표현 모두 한 민족의 전통문화, 사회풍속 등의 영향을 받아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사회문명의 발전과 진보에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그에 적합한 또 다른 새로운 금기어가 다시 생성되고 있다. 이렇게 언어의 금기 대신 완곡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시대와 사회, 국가에 따라 다양한데, 이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이 꺼려하는 말, 혹은 행동을 완곡하게 표현하면 공포 심리를 완화할 수 있고, 그리고 초탈과 존중의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죽음’을 ‘돌아가다’, ‘다른 세상에 가다’ 등의 말로 표현하며, 이들은 인간의 생사와 관련되거나 질병 같은 금기시된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완곡 표현이다.

둘째, 신앙이나 종교 등 신성한 대상과 연관된 명칭에 나타난 완곡 표현들이다. 인류가 힘을 숭배하고 자연을 신앙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 혹은

22) 조영구(2006:22)에서는 일반적으로 완곡어는 감정의 대리 분출, 공손한 예의 표현 증진, 의미 약화, 자문화(自文化) 혹은 타문화(他文化)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

신령의 이름을 마음대로 입에 올리기를 꺼리게 만들었고, 여기에서 완곡 표현이 생겨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호랑이를 ‘시군(弒君)’, ‘산신령(山神靈)’ 등 완곡한 표현으로 산중의 왕인 호랑이가 짐승의 침략을 면하게 하고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셋째,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따라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저속한 것을 피하려는 심리적인 경향으로 나타난 완곡 표현들이다.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성기나 생식기, 배설물 등 외설적인 사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면 교양이 없거나 저속해 보인다고 여겨서 우아하게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배부르다’는 말은 ‘임신’을 뜻하며, ‘화장실’은 ‘변소’라는 말을 대신하는 셈이다.

넷째,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인간 교류에서 정치와 심리의 원칙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났다. 주로 장애인, 노인문제, 빈곤 낙후된 국가 및 사람들에게 저급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화제에 올릴 때 자주 나타나는 표현으로 정치, 군사, 외교 용어에도 보인다.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을 ‘장님’, ‘상인’을 ‘장사꾼’이라고 불렀다(楊德峰 1999). 정치외교영역에서는 완곡 표현을 더욱 대량으로 사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可以了解)’, ‘받아들일 수 있다(可以接受)’, ‘유감스럽다(表示遺憾)’ 등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한다(吳穎 1996:36~39).

2.2. 수사법

수사학은 옛 그리스 시칠리아 성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백성들이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재판관들을 설득하려면 뛰어난 말솜씨가 필요하였으며 이것이 수사학의 시초라고 한다. 그 후 수사학은 시대에 따라 부침을 겪어 왔으며, 20세기 후반 이후로는 ‘수사학의 시대’라 할 만큼 활기를 띠고 있다.

2.2.1. 수사학

수사학(修辭學, rhetoric)은 대중 연설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청중을 설득하려는 말의 능란한 사용 방법이며, 문학 작품에서는 주제를 더욱 아름답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기술을 뜻하는 말이다(백승잔 2013: 21).

수사학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관점이 다르다. 즉 아테네우스(Athenaeus)는 “수사학은 청중의 설득을 노리는 연설의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알부티우스(Albutitus)는 “수사학은 공공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가도록 훌륭하게 말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크세노크라테스(Xenokrates)는 “수사학은 아름다운 표현의 과학이다.” 라고 정의하였다(양태종 1992: 107~108).

수사학의 어원(語源)을 살펴보면 그리스어인 ‘rhema(a word)’ 와 ‘rhetor (ateacher of oratory)’ 가 모두 ‘말하다(I say)’를 의미하는 ‘eiro’ 에서 유래된 것으로 ‘rhetoric’ 은 불어인 ‘rhetorique’를 그 기원으로 삼는다. 이러한 어원을 통해서 볼 때 수사학의 원래 의미는 ‘말하는 것 (speaking)’, ‘연설하는 것(oring)’ 과 관련있는 것이다. 특히 일차적으로 설득적인 ‘담화(discourse)’와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E. P. J. Corbett 1971:31~32).

2.2.2. 수사법의 개념

지금까지 수사법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은 편이다. 김육동(2002:20)에서는 “수사학이란 말을 잘하는 재주 곧 말로써 남을 설득시키는 기술을 뜻한다. 남을 설득시킬 때 비로소 화자는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고 하고 있으며. 문희선(2002:17)에서는 “수사학이란 언어를 매개로 사상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사람, 즉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읽는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의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말 또는 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

법 또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계효하(2012:23)에서는 수사법이란 “독자에 대한 효과적인 설득과 공감을 얻기 위한 언어 표출 방식으로서 규칙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에서 일탈한 특별한 구조형식을 갖는 방법”이라고 하였다.²³⁾

2.2.3. 수사법의 분류

수사법이란 말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말이라는 것은 그것을 쓰는 대로 무한히 그 방식이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류는 매우 많다. 또한 그 종류만큼 수사법을 나누는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수사학에서 김옥동(2002)은 수사법의 종류를 크게 소리에 따른 수사법, 의미 전이에 따른 수사법, 문장 구조에 따른 수사법, 감정에 호소하는 수사법, 상호 텍스트적 수사법으로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한국 수사법 분류(김옥동 2002)

수사법의 분류	해당되는 수사 기법
소리에 따른 수사법	중간 휴식법, 가음법, 약음법, 두운법, 모운법, 말운법, 각운법, 의성법, 의태법, 호음조법, 오음조법
의미 전이에 따른 수사법	은유법, 직유법, 환유법, 제유법, 의인법, 의문법, 반어법, 역설법, 모순법, 동음이의어법, 이음이의어법, 이음도의어법, 과사법,

23) 현대 중국 수사학 이론의 체계를 성립 陳望道(1932:74)에서는 “辭格是積極修辭的各種格式, 是情境的適應和語感的利用兩方面的綜合可從構造和功能方面進行分析”이라고 제시하였다. 한편 陳望道에 이어 중국 수사학 이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張弓(1963:58)은 “辭格方式是適應社會交際的需要, 根據民族語言的內部發展規律創造的具體的, 語言藝術的手段”이라고 다시 정의하였다. 또한 黎運漢, 張維耿(1986:94)에서는 “辭格是人們常習用的比較固定的方式或格式, 它具有一定的構造形式有特定的表達功能.”라고 하였다.

	의오법, 상징법, 풍유법
문장 구조에 따른 수사법	비교법, 전치법, 치환법, 교체배열법, 역순법, 열거법, 반복법, 점층법, 점강법, 급락법, 연쇄법, 제시법, 추가법, 생략법, 돈절법, 쌍서법
감정에 호소하는 수사법	영탄법, 돈호법, 의문법, 설의법, 문답법, 자문자답법, 부정법, 환어법, 과장법, 완서법, 곡어법, 완곡법, 위악어법, 용어법, 현실법, 예변법, 수자풀이법, 즐자풀이법
상호 텍스트적 수사법	인용법, 인유법, 경구법, 속담법, 고어법

이에 비해, 중국 수사학에서 陳望道(1932)는 수사법을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다. 정리하면 다음 <표 6> 과 같다.

<표 6> 수사법의 분류(陳望道 1932)

수사법의 분류	해당되는 수사 기법
材料上的辭格 (문장에 따른 수사법)	比喻(비유), 借貸(차대), 映衬(영친), 模狀(모상), 雙關(쌍관), 引用(인용), 仿擬(방의), 拈連(영련), 移就(이취)
意境上的辭格 (언어 환경에 따른 수사법)	比擬(비의), 諷諭(풍유), 示現(제시), 呼告(호고), 誇張(과장) 倒反(도반), 婉轉(완곡), 避諱(피회), 設問(살문), 感歎(감탄)
詞語上的辭格 (어휘에 따른 수사법)	錫字(석자), 藏詞(장사), 飛白(비백), 鑲嵌(상감), 復迭(복질), 節縮(절축), 省略(생략), 警策(경구), 折繞(절요), 轉品(전품),

	回文(회문)
章句上的辭格 (구절에 따른 수사법)	反復(반복), 對偶(대구), 排比(열거), 層遞(점층), 錯綜(교차 배열), 頂眞(정진), 倒裝(도장), 跳脫(도탈)

陳望道(1932)의 첫 번째 분류가 기술 대상 혹은 소재 선택에 기준을 두었다면, 두 번째 분류는 내용상의 묘사 방법, 세 번째 분류는 어휘의 선택과 운용, 네 번째 분류는 문장의 통사론적인 관점에 따라 각 종류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하위 분류를 도모한 것이다.

지금까지 수사법에 대한 정의와 설명을 한국과 중국 수사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수사법의 종류에 대해 陳望道(1932)와 김옥동(2002)을 비롯한 몇몇 수사학자들의 분류 방식 및 그 종류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표 5>와 <표 6>은 각각 한국 수사학의 분류와 중국 수사학의 대표적인 분류라 할 수 있는데 두 분류 중 한국 수사법의 분류인 <표 5>에서 별도로 소리에 따른 수사법을 한 종류로 구분한 것은 중국 수사법의 분류와 큰 차이가 있다.

3. 한국어와 중국어 죽음에 관한 금기어 비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은 생로병사 중의 하나로 인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더러 누구나 장수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죽음에 대한 금기사항이 다른 것보다 다양하고 가짓수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죽음은 사전에서 ‘생물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를 통틀어 사용하는 단어이다. 굳이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인류가 최초로 출현한 이후부터 인간에게 죽음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신성시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빈번한 문화적 접촉으로 인해 금기어 간의 상호 흡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국토가 연접해 있고 서로 의지해서 예로부터 문화 분야의 관계가 특히 밀접하다. 구전 문학으로서의 금기어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의 내용, 문형, 품사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3.1. 금기어의 내용 비교

본 절에서는 죽음에 관한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²⁴⁾를 사람과 관련된 것, 명절과 관련된 것, 초상·장례·제사와 관련된 것, 동식물과 관련된 것, 의식주와 관련된 것, 기타 행위와 관련된 것 등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24) 본장에서 죽음에 관한 금기어는 줄여서 금기어라고 한다.

3.1.1. 사람에 관한 금기어

사람에 관한 금기어는 단순히 사람의 신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도 포함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룰 금기어는 사람에 대한 금기어로, 이러한 금기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특징이다. 사람에 관한 금기어는 부모에 관한 것, 자식에 관한 것, 부부에 관한 것, 여성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3.1.1.1. 부모에 관한 금기어

한·중 두 나라는 예로부터 공자(孔子)의 사상이며 가르침인 유교사상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효에 대한 각별한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유교는 고려 말에 국가의 지도적 이념으로 등장한 이래 조선 시대를 지배한 사상으로 효사상의 근간이 되었다. 이에 자손이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부모가 장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금기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예상 외로 부모의 죽음과 관련된 금기어의 수가 한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데 이는 중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부모가 돌아가신다는 말은 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에 관한 금기어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금기어>

(15) 밤에 하는 행동과 관련된 금기어

- ㄱ. 두 손을 목에 베고 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ㄴ. 머리를 아랫목으로 두고 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ㄷ. 이를 갈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
- ㄹ. 이마에다 팔을 올리고 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근심이 있다)

- ㄹ. 밤에 머리를 감으면 새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 ㅁ. 밤에 머리를 빗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또는 근심이 생긴다)
- ㅂ. 밤에 손톱, 발톱을 깎으면 부모님 임종을 지키지 못한다.

(16) 신체와 관련된 금기어

- ㄱ. 반지를 둘째손가락에 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ㄴ. 손가락을 입에 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 ㄷ. 손으로 턱을 괴면 부모님과 이별한다.
- ㄹ. 손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 ㅁ. 손톱을 입으로 깎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ㅂ. 엄지손가락에 봉숭아물을 들이면 아버지는 오래 살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신다.
- ㅅ. 둘째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길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
- ㅇ. 세숫물에 손과 발을 같이 씻으면 부모가 같이 돌아가신다.

(17) 식사와 관련된 금기어

- ㄱ. 생쌀을 먹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ㄴ. 밥사발을 포개 놓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 ㄷ. 밥상 앞에서 울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 ㄹ. 밥을 먹다가 숟가락 짚고 한숨 쉬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

(18) 기타 행위와 관련된 금기어

- ㄱ. 부인이 머리를 풀고 문지방을 넘어서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ㄴ. 머리를 풀고 다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²⁵⁾
- ㄷ. 자기 머리를 새끼로 묶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25)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이 금기어로 바뀐 과정은 장례식 때 상주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우는 모습에서 연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허재영 2002:17).

- ㄹ. 베개를 세워 놓으면²⁶⁾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ㅁ. 땅을 파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ㅂ. 어린애의 웃고름을 각각 다른 색으로 달아 주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
- ㅅ. 대지팡이를 짚고 넘어지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 ㅇ. 어린애가 실없이 땅을 파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 ㅈ. 뒤통수를 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 ㅊ. 실패에 실이 하나도 없으면 부모님이 헐벗고 돌아가신다.

<중국어 금기어>

(19) ㄱ. 正月十五, 看婆家燈, 死親爹, 看娘家燈, 死公公.²⁷⁾

(정월 보름날에 시댁의 불을 보면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정의 불을 보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다.)

ㄴ. 冬至回門, 克死公婆.

[동지(冬至)에 친정집에 가면 시부모가 돌아가신다.]

ㄷ. 直呼長輩的名字, 長輩折壽.

(어른의 이름을 부르면 어른이 일찍 죽는다.)

ㄹ. 老人臉發黑, 死亡預兆.

(어른의 얼굴에 흙빛이 띠면 어른의 죽음에 대한 전조이다.)

26) 눅혀 사용해야 하는 물건을 세워 둬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허재영 2002:57).

27) 하남(河南)의 풍속 중에 ‘躲燈(등을 피하다)’ 라는 말이 있다. 이에 관한 금기어는 “閨女看了娘家燈, 娘家窮得釘打釘(딸이 친정집의 등불을 보면 집안 식구들이 가난하다.)”, “正月十五不躲燈, 先死老公公(정월 대보름날에 등불을 보면 시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다.)” 등이 있다.

- ㉠. 老人抱孩童, 孩童躲閃, 死亡預兆.
(어른이 아기를 안을 때 아기가 피하면 어른한테 죽음의 전조이다.)
- ㉡. 老人用的碗打碎了, 預示老人死亡.
(어른이 사용하는 그릇을 깨면 어른한테 죽음의 전조이다.)
- ㉢. 清明不回娘家, 方死公婆.²⁸⁾
[청명(淸明) 에 친정집에 안 가면 시부모가 돌아가신다.]
- ㉣. 衆路相沖, 家無老翁.
(주택 문 앞에 길이 복잡하면 집안 어른이 일찍 돌아가신다.)
- ㉤. 月蝕之子, 行房則子母必遭凶險.
[월식(月蝕) 때 정사를 하면 어머니까지 돌아가신다.]

한국어의 부모에 관한 금기어는 수가 많기 때문에 밤에 하는 행동에 관한 것, 신체에 관한 것, 식사에 관한 것, 기타행위에 관한 것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밤에 하는 행동과 관련된 금기어에서는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밤에는 여러 가지 잡스러운 행동들을 못하게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밤이 갖는 조용한 이미지를 흐트러뜨리는 행동에 제약을 둠으로써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부모님의 죽음과 연관 지어 금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5ㄷ)과 같이 ‘이를 같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 라는 표현으로 이를 가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런 금기어는 죽음과 관련된 금기어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도 뜻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8) 청명(淸明) 에는 친정집에 가서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성묘를 하는 전통이 있다.

신체에 관한 금기어는 밤과 관련된 금기어에서 보이는 바와 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식사와 관련된 금기어에서는 평상시에도 지켜야 할 식사 예절과 부모님의 죽음을 연관시켜 금기하는 형태의 금기어들이다. 가령, (17㉞)과 같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 짚고 한숨 쉬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 에서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결코 좋지 않은 식사 습관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한 제약을 금기어로 표현해 놓고 있다.

행위와 관련된 금기어에서는 각각의 행동 하나 하나의 잘못된 부분을 부모님의 죽음과 연관시키는 금기어들이다. 그 가운데 (18ㄱ)과 같이 “부인이 머리를 풀고 문지방을 넘어서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라는 금기어는 현재의 주거 형태로 보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금기어로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전통 한옥집이 대다수의 주거 형태였지만 현재는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이 많은 현실에서 보면 잘 맞지 않는 것이다. 다만, 근래 들어 전통 한옥 집들을 선호하는 계층들이 있어 이 금기어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8ㄷ)과 같이 “실패에 실이 하나도 없으면 부모님이 활벗고 돌아가신다.” 에서 의미하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해롭다는 뜻을 담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이 당연히 행하여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중국어 금기어는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역시 효 사상을 근간으로 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중국어의 경우는 위의 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을 언급하면 큰 실수가 되므로 이에 관한 금기어는 직접 부모님이라는 언어를 쓰지 않고 ‘어른’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님이라는 단어 대신 어른이 돌아가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또한 중국어 금기어에서는 전조어 형태의 금기어가 여럿 보인다. 예를 들면 (19㉡)은 ‘어른이 돌아가신다.’ 라고 하지 않고 ‘어른한테 죽음의 전조’ 라고 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 금기어에서는 중국의 전통이 묻어 있는 금기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청명(淸明)에 친정집에 안 가면 시부모가 돌아가신

다.” 처럼 부모님의 죽음과 연관을 지어 효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어 금기어에서는 절기와 관련된 금기어들이 다수 보이는데 이는 한국어 금기어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금기어는 전반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해야 하는 것들을 명시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효에 대한 사상을 고취시키는 데 대부분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금기어에서는 크게 다른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중국과 달리 금기어의 종류 면에서 한국에 다양한 금기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1.2. 부부에 관한 금기어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고, 함께 자녀를 양육하며 사이 좋은 부부를 잉꼬부부라고 한다. 아내를 존중하고 아끼는 남편을 자상한 남편이라고 하며, 남편을 존중하고 위해 주는 아내를 현명한 아내라 한다. 예전에는 남존여비 사상과 일부다처제²⁹⁾의 혼인관계가 존재하여 남자에 비해 여자가 홀대받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나 현대에는 일부일처제가 다수여서 대체적으로 남녀가 평등한 관계가 되었다. 아래 금기어에서는 부부간에 서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상황들을 담고 있는데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어 금기어>

(20) ㄱ. 결혼식 첫날밤 먼저 자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29)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는 봉건사회에서 한 남편에게 동시에 여러 아내가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제도다. 고대 중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계속 존재 해왔으며, 1912년 『중화민국임시약법』(《中華民國臨時約法》)에서 '일부일처'라는 제도를 제시하였지만, 역사적인 각종 원인으로 인해, 1950년 5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中華人民共和國婚姻法》)이 나올 때까지 일부다처제가 존재하였다(<http://www.docin.com/p-8868457.html>).

- ㄴ. 뒷머리를 갈라 빗으면 남편이 죽는다.
- ㄷ. 아내가 이마에 손을 얹고 자면 남편이 죽는다.
- ㄹ. 정월 대보름날 신발을 하늘 귀신이 신어 보면 그 배우자가 죽는다.
- ㅁ. 갓 결혼한 색시 손이 북어 가시에 찔리면 죽는다.

<중국어 금기어>

(21) ㄱ. 已婚男人正月洗脚死妻子, 已婚女人正月洗脚死丈夫.

(부부가 정월에 발을 씻으면 남편이나 부인이 죽는다.)

ㄴ. 洞房睡空(新)床, 不死丈夫也死妻.

(결혼한 첫날밤에 새 침대에서 자면 남편이나 부인이 죽는다.)

ㄷ. 女人睡覺打鼾, 克死丈夫.

(여자가 잠을 잘 때, 코를 골면 남편이 죽는다.)

ㄹ. 忌無春之年嫁娶.³⁰⁾

(입춘이 없는 해에 결혼하면 남편이 죽는다.)

ㅁ. 已定的結婚日期忌改他日, 改日死婆家人.

(정해진 결혼 날짜가 바뀌면 남자집안 사람이 죽는다.)

ㅂ. 新娘入男家忌踏門檻, 否則男家遇喪病之災.

(신부가 신랑 집에 들어갈 때 그 집 문턱을 밟으면 신랑의 가족들이 아파서 죽는다.)

30) 중국에서는 입춘이 없는 해를 과년(寡年)이라고 부른다. 과(寡)는 과부(寡婦)를 뜻하므로 입춘이 없는 해(과년)에 결혼하지 않는다.

- ㄸ. 禁忌窺視僑中的新娘，看到會瞎眼或死亡。
(꽃가마 안에 있는 신부를 엿보면 눈이 실명하거나 죽는다.)
- ㄹ. 迎親途中怕出現不好的天氣，特別是打雷，夫婦中有一人要早死。
(결혼한 날 날씨가 안 좋거나 천둥이 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죽는다.)
- ㅀ. 蠟燭燃得不旺，或中途熄滅，新人有災.³¹⁾
(결혼 날 촛불이 타오르지 않거나 꺼지면 신랑신부에게 재앙이 온다.)
- ㅁ. 騎馬拜堂，家破人亡.³²⁾
(여자가 생리일에 결혼하면 집안 식구들이 죽는다.)
- ㅂ. 百里行房者病，行房百里者死。
(멀리 다녀온 후에 정사를 하면 아프고, 멀리 떠나기 전에 정사를 하면 사람이 죽는다.)
- ㅅ. 忌近婚喪事。
(복상 기간에 집안 식구들이 결혼하면 안 된다.)
- ㅇ. 女婿上床，家破人亡。
(부부가 여자의 친정집에서 정사를 하면 집안 식구들이 죽고, 집이 망

31) 중국 민간 속담 중에 ‘左燭盡新郎先亡，右燭盡新娘先亡(왼쪽의 촛불이 꺼지면 신랑이 먼저 죽고, 오른쪽의 촛불이 꺼지면 신부가 먼저 죽는다.)’ 라는 말이 있으며 만약에 어느 쪽의 촛불이 꺼지면 다른 하나도 꺼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부부는 ‘生則同衾，死則同穴(살아서는 잠자리를 같이하고,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힌다.)’ 라는 뜻이다.(任驄 2004:159).

32) 여자가 사용하는 생리대를 중국어로 ‘騎馬布’ 라고 하기 때문에 여자가 생리기간에 결혼하면 ‘騎馬拜堂’ 이라는 표현을 쓴다(任驄 2004:132).

한다.)

부부에 관한 금기어는 남녀가 결혼한 후에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예를 들어 (20ㄱ)에서는 초야를 치르는 입장에서 좀 더 서로를 알라는 뜻으로 보인다. 즉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상의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잠으로 채우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ㄷ)에서 제시한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다른 죽음의 금기어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며 매우 좋지 않은 불길한 행동으로 제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어 금기어도 한국어 금기어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다만, (21ㄱ)처럼 결혼 날짜와 관련된 금기어가 다수 보이는데 이는 길일을 택하여 혼인식을 하는 것이 매우 이롭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와 중국어 부부에 관한 금기어를 살펴보았다. 두 나라 모두 다 부부간에 지켜야 할 사항들을 금기어로 만들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결혼식에 관한 금기어도 많이 존재한다.

3.1.1.3. 자식에 관한 금기어

부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생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다산을 중요시했으며 칠거지악(七去之惡)에서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는 쫓겨난다는 구절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옛날 사람들은 자손의 번창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자식 생산과 더불어 아무 문제가 없이 자라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식에 관한 금기어는 부모가 자녀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금기어>

- (22) ㄱ. 기둥이 쓰러지면 자식이 죽는다.
 ㄴ. 아버지를 너무 따르는 아이는 수명이 짧다.
 ㄷ. 어린애 낳을 때 닭을 잡으면 그 아이가 부정 탄다.
 ㄹ. 어린애가 변소에 빠지면 쉽게 죽는다.
 ㅁ. 산후에 밖에서 흙을 파면 그 어린애가 죽는다.
 ㅂ. 어린 아이에게 죽은 형제를 닭았다고 하면 머지않아 그 아이가 죽는다.
 ㅅ.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지팡이를 주면 아들이 먼저 죽는다.
 ㅇ. 어머니의 머리를 잘라서 딸에게 주면 딸이 죽는다.
 ㅈ. 어린애가 누웠을 때 그 아이의 발을 빨면(간지럽게 하면) 그 아이가 죽는다.

<중국어 금기어>

- (23) ㄱ. 早剃胎髮新生兒會夭折.
 (새로 태어난 아기의 배냇머리를 일찍 자르면 아기가 죽는다.)

 ㄴ. 孕婦房內釘釘子, 腹中胎兒夭折.
 (임부의 방에서 못을 박으면 배 안의 아기가 죽는다.)

 ㄷ. 三朝洗人時忌爲嬰兒穿褲子, 恐嬰兒夭折.
 (아기가 태어난 삼일 후에 목욕을 시키고 바지를 입히면 아기가 죽는다.)

 ㄹ. 嬰兒夭折要將死嬰丟棄在水中, 否則會變鬼作祟, 不能再懷孕.

(아기가 죽은 후에 물에 버리지 않으면 죽은 아기가 악귀가 되어 다시는 임신을 못하게 된다.)

ㄹ. 小兒百日内禁止剃髮, 否則就有夭折的危險.

(아기가 태어나고 백일이 되기 전에 이발하면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

ㅁ. 忌流淚于夭折之嬰兒屍上, 否則再生者亦將夭折.

(눈물이 죽은 아기의 시신에 떨어지면 다시 아기를 낳아도 그 아기가 죽는다.)

자녀에 관한 금기어는 대체적으로 한국어의 경우는 주로 부모나 그 이외의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중국어의 경우는 대부분 아기의 몸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22ㄹ)은 산후에 임산부가 밖에서 흙을 파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며, (23ㅁ)은 아이의 머리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말이다. 자녀에 관한 금기어는 이뿐만 아니라 한 생명의 탄생은 부모에게 축복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임산부가 금기해야 할 사항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다음 여성과 관련된 금기어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중에 자녀와 관련된 사항만 제시하였다. 임산부가 꺼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간에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중국어 금기어의 경우 임산부는 경사나 상사를 모두 피해야 하는데 한국어 금기어는 상사만 피해야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3.1.1.4. 여성에 관한 금기어

예로부터 남존여비라는 봉건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성의 존재가치를 남성과 불평등 관계로 격하시켜 심지어 여성이 불결과 불길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으며, 여성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에 관

한 금기어도 많이 전해진다.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 현대에서 조금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고 해도 여성의 행동에 대한 제약사항이 꽤 많이 존재하고 있다. 임신부의 모든 행위는 자녀의 생명과 직결되어 제약을 받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여성이 하는 일상생활에도 수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임신부에 관한 금기어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임부에 관한 금기어

임부에 관한 금기어는 많지 않지만 사람들은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만큼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소중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임부는 모난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불길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 이것은 태교를 강조한 옛 여성들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금기어>

- (24) ㄱ. 산고(産苦)로 죽은 여자는 도중에서 세 번 내려놓지 않으면 나쁘다.
ㄴ. 산모는 벌레를 잡지 않는다. 아니면 아이가 죽는다.
ㄷ. 임신 중인 여인이 구렁이가 용이 되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유산한다.
ㄹ. 임신한 여자가 고양이를 죽이면 고양이를 닮은 애를 낳는다.
ㅁ. 어린애 낳고 초상집에 가면 해롭다.

<중국어 금기어>

- (25) ㄱ. 穿喪衣忌孕婦見.
(임부는 상복을 입는 사람을 보면 안 된다.)
ㄴ. 孕婦忌看喜喪事, 切勿手觸棺木, 否則嬰兒會夭折.

(임산부는 경사나 상사를 보거나 관을 만지면 배속의 아기가 죽는다.)

위의 두 나라 금기어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 (24ㄷ)과 (25ㄱ)에서는 두 나라 모두 임신과 초상의 상극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밖에 임산부의 금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지만 이 모두 아이의 길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한국어 금기어 중에 (24ㄷ)에서 동물과 관련된 금기어가 보이며 중국어 금기어에는 없는 것이 특징이다.

2) 임부 외의 여자에 관한 금기어

<한국어 금기어>

(26)ㄱ. 동네에서 초상이 났을 때 바느질하면 나쁘다.

ㄴ. 바늘에 실 꿰어 주고 실매듭 지어 주면 지옥에 가서 풀어 달라고 한다.

ㄷ. 밤에 다리미 빌려주면 자기 딸이 빨리 죽는다.

ㄹ. 밥상 위에 행주를 올려놓으면 물에 빠져 죽는다.

ㄹ. 사람이 죽었을 때 바느질하면 빨리하고 같이 가자고 한다(바느질하는 사람도 빨리 죽는다.).

ㅂ. 아침에 여자가 다리미를 빌려오면 그 집(빌려준 집) 딸이 죽는다.

ㅅ. 여자가 밤에 빨래(방망이질)를 하면 동네 처녀가 죽는다.

ㅇ. 이웃에 초상이 났을 때 빨래나 바느질하면 불길하다.

ㅈ. 저녁에 방망이질하면 이웃 노인이 죽는다.

ㅊ. 해진 뒤에 방망이질하면 동네 노인이 죽는다.

<중국어 금기어>

(27) ㄱ. 女人頭腫, 家中有喪事.

(여자의 머리가 부으면 집에 초상이 난다.)

ㄴ. 正月姑娘打裕褸, 死舅舅.

(여자가 정월에 헝겊 조각이나 냅마 조각을 붙여서 신발을 만드는 조각을 만들면 외삼촌이 돌아가신다.)

ㄷ. 婦女坐在建房的梁檁上, 家中有喪事.

(여자는 집을 짓는 들보와 상량에 앉으면 집에 초상이 난다.)

ㄹ. 火葬忌女人參加.

(화장할 때 여자는 참석하면 안 된다.)

ㅁ. 處女亡後, 若出正門, 再加喪.

(처녀가 죽은 후에 정문으로 나가면 사람이 또 죽는다.)

ㅂ. 禁忌婦女走路時抬頭挺胸, 克子克夫.

(여자가 머리를 치켜들고 가슴을 내밀고 다니면 남편과 자녀가 죽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의 행동에 대한 제약이 고스란히 두 나라 금기어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금기어에서는 바느질, 다림질, 빨래 등 여성의 일상적인 일들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남성이 조심하여야 할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남존여비 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심지어 (26ㄹ)처럼 현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조

차 금기하고 있다. 중국어 금기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보면 (27b)에서는 여자가 당당함을 보여서는 안 되고 항상 순종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과 여성 차별에 대한 사항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3.1.2. 명절에 관한 금기어

명절은 전통적으로 그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마다 즐기고 기념하는 날이며 나라마다 보내는 명절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설과 추석이 대표적인 명절인데 중국에서는 대보름, 단오(端午), 중양절(重陽節) 등도 중시하는 명절이다. 사람들은 명절에 좋지 않은 일이 없기를 원하고 특히 설날은 한 해의 시작으로 이 날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일 년 동안 나쁘다고 믿는다. 명절에 관한 금기어의 대상은 모두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인간에 관한 금기어의 범주 안에서 다루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금기어>

- (28) ㄱ. 명절날 일하면 어린 자식 두고 죽는다.
 ㄴ. 설날에 일하면 죽을 때 헛손질한다.
 ㄷ. 정월에 초상집 가면 불길하다.
 ㄹ. 정월에 초상집 가면 해롭다.

<중국어 금기어>

- (29) ㄱ. 正月初一啼哭, 今年有及病, 故忌.
 (정월 초하루에 울면 일 년 동안 아프거나 죽는다.)

- ㄴ. 清明不戴柳, 命付黃泉.³³⁾
(청명일에 버드나무 가지를 달지 않으면 죽는다.)
- ㄷ. 正月更換洗滌衣被, 家中有喪事發生.
(정월에 옷이나 이불을 갈면 집에 초상이 난다.)
- ㄹ. 正月剃頭, 死舅舅.
(정월에 이발하면 외삼촌이 돌아가신다.)
- ㅁ. 正月初一, 拜年于床前, 受拜人, 年內病亡.
(정월 초하루에 세배를 받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이 일
년 안에 죽는다.)
- ㅂ. 春節忌喪家拜年.
(설 때 상주는 세배하지 않는다.)
- ㅅ. 正月不提親, 提親死媒人.
(정월에 중매를 서면 중매쟁이가 죽는다.)
- ㅇ. 回家過重陽, 死她婆婆娘.
(친정에 가서 중양절을 쇠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

두 나라 모두 정월에 대한 금기어가 존재한다. 정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첫 달의 운수가 한 해의 운수를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8ㄷ)과 (29ㄷ)은 상주가 세배하면 부정을 탈 수도 있으므로 정월에 상주가 절대 세배하

33) 청명일은 성묘하는 전통이 있다. 묘지근처에 가면 자기를 보호하는 의도로 버드나무가지를 달고 다니다. 이것은 버드나무가 악귀를 물리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 외에 중국어 금기어 중에는 (29ㄴ, ㅇ)처럼 다른 명절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한국어 금기어에서는 정월에 관한 것만 전해진다.

3.1.3. 초상·장례·제사에 관한 금기어

사전에서는 초상은 ‘사람이 죽어서 장사지낼 때까지의 일’로, 장례식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장사(葬事)를 지내는 의식’으로, 제사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 정성을 표하는 의식’으로 정의하였다. 초상·장례·제사에 관한 금기어는 모두 죽은 사람에 관한 내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바, 여기에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신령과 죽은 사람의 영혼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금기어의 비중도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초상·장례·제사에 관한 금기어를 통해서 살아 있는 사람이 망자를 애도하기 위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기어들이 존재하고 비슷한 형태의 금기어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바, 아래에서는 초상과 관련된 금기어, 장례식에 관한 금기어, 제사에 관한 금기어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3.1.3.1. 초상에 관한 금기어

〈한국어 금기어〉

- (30) ㄱ. 동네에서 초상이 났을 때 머리를 빗으면 불길하다.
ㄴ. 동네에서 초상이 났을 때 머리를 감으면 해롭다.
ㄷ. 동네에서 초상이 났을 때 바느질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ㄹ. 동네에서 초상이 났을 때 팔밥을 먹지 않는다.

- ㄷ. 이웃에서 초상이 났을 때 바느질하면 불길하다.
- ㄴ. 초상날 집과 등불을 같이 켜지 않는다.
- ㄷ. 부모님 초상 때에는 머리를 빗지 않는다.
- ㄹ. 상주가 새 옷을 입으면 부모님 저승길이 어둡다.
- ㅈ. 임종 날 김장하면 또 사람이 죽는다.

<중국어 금기어>

- (31) ㄱ. 隣居有喪事時，舂米不能發出用力的聲音。
(동네에서 초상이 났을 때 정미하는 소리가 나면 안 된다.)
- ㄴ. 村子里有喪事時，不能在村內巷子里唱歌。
(동네에서 초상이 났을 때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
- ㄷ. 忌死者屍體不僵，屍軟後代不發。
(죽은 사람의 시신이 뻣뻣하지 않으면 자손이 부자가 못 된다.)
- ㄹ. 服喪忌理發。
(복상기간에 이발하면 안 된다.)
- ㅁ. 服喪忌剃鬚。
(복상기간에 면도하면 안 된다.)
- ㅂ. 喪期三年內，食狗肉不吉利。
(초상이 난 3년 안에 개고기를 먹으면 불길하다.)

(32) 죽은 시간과 장소에 관한 금기어

ㄱ. 忌死在西北炕上.

(사람은 서쪽이나 북쪽의 온돌방에서 죽으면 안 된다.)

ㄴ. 複式房屋, 忌死在樓上.

(사람은 이층집의 위층에서 죽으면 안 된다.)

ㄷ. 忌死于原鋪上, 預示不能馬上轉生.

(자주 있는 자리에서 죽으면 빨리 환생할 수 없다.)

ㄹ. 斷氣不抽氈, 來世難轉人.

(사람이 죽은 후에 밑에 까는 이불이나 담요를 바로 빼지 않으면 환생하기 힘들다.)

ㅁ. 死者死于晚飯後, 後代沒飯吃.

(사람이 저녁식사 시간이 지난 후에 죽으면 자손이 먹을 것이 없다.)

ㅂ. 忌死在正月.

(사람이 정월에 죽으면 안 좋다.)

ㅅ. 忌死在腊月.

(사람이 설달에 죽으면 안 좋다.)

(33) 수의에 관한 금기어

ㄱ. 不給死人穿紅衣, 否則死人會變成戾鬼.

(죽은 사람한테 빨간 옷을 입히면 그 사람은 악귀가 된다.)

ㄴ. 忌給死者穿黑色衣服, 死後會變成驢.

(죽은 사람한테 검정 옷을 입히면 죽은 후에 당나귀가 된다.)

ㄷ. 死人忌以裘皮之類做裝裹, 恐怕來世托生獸類.

(죽은 사람한테 모피를 입히면 내세는 짐승으로 태어난다.)

ㄹ. 用段子做壽衣, 斷子絕孫.³⁴⁾

(비단으로 수의를 만들면 자손이 끊어진다.)

ㅁ. 給死者穿壽衣時, 眼淚掉在死者身上, 此人會瘋.

(죽은 사람의 수의를 입힐 때 눈물이 시신 위에 떨어지면 미치게 된다.)

위의 예를 통해서 두 나라는 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거나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 초상이 났을 때 슬픈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30㉠)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픈 상황에서 새 옷을 입는 것은 자신을 치장하는 행위로 이는 애도하는 마음과 거리가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이는 (31ㄹ), (31ㅁ)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30ㄴ)과 (31ㄴ)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어 금기어는 나쁜 것을 피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어 금기어는 초상이 일어난 이웃집을 배려해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에는 한국보다 초상에 관한 금기어의 숫자가 많은데 수의, 죽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있는 것을 따로 분류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죽은 시간이나 장소와 상관있는 것은 대부분 미신과 관련된 금기어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32ㄴ)과 같이 이층집에 사는 사람은 위층에서 죽으면 밤마다 위층에 귀신이 나타나고 귀신소리가 난다는 미신이 있으므로 사람이 이층에서 죽는 것을 꺼린다. 수의에 관한 금기어는 주로 수의의 재질과 색깔 등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33ㄱ)

34) ‘段子(비단)’ 과 ‘斷子(자손이 끊어지다)’ 는 두 단어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자식은 비단으로 수의를 만들지 않는다.

은 빨간색은 중국에서 경사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색깔이라서 죽는 사람에게 이 색깔을 입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33ㄹ)은 비단의 단(段)자는 끊을 단(斷)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비단으로 수의를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 밖에 중국어 금기어 중에 다수가 내세와 환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32ㄷ, ㄹ)은 바로 이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3.1.3.2. 장례에 관한 금기어

<한국어 금기어>

- (34)ㄱ. 상가에 갔던 사람이 바로 집으로 오면 불길하다.
 ㄴ. 상가에 갔다 올 때에는 소금을 뿌려야 한다.
 ㄷ. 상여를 메고 나가면서 무겁다고 하면 더 무거워진다.
 ㄹ. 상여가 나가는데 우물을 열어 두면 우물물이 흐려진다.
 ㄻ. 상여 메고 나갈 때 피가 흐른다고 하면 더 흐른다.
 ㄽ. 상주에게 죽음의 원인을 물어보면 안 된다.
 ㅅ. 관이 방에서 나갈 때 문지방에 닿으면 불길하다.
 ㅇ. 상여 나갈 때 길을 건너가면 불길하다.

<중국어 금기어>

- (35)ㄱ. 影子入落墓穴 爲死人陪葬.
 (그림자가 묘지에 반사되면 순장한다.)
 ㄴ. 忌脚印入墓 表示陪葬.
 (묘지에 발자국이 있으면 순장한다.)

- ㄷ. 雨打棺材蓋, 子孫沒有被褥蓋.
(관이 비에 젖으면 자손이 덮을 이불이 없다.)

- ㄹ. 送葬路上碰到相識者忌他招呼, 恐被亡人得知, 對被招呼者不利.
(장례를 치를 때 아는 사람한테 인사하면 인사 받는 사람한테 안 좋다.)

- ㅁ. 殯葬歸途中哭, 還有喪事.
(장사를 끝내고 집에 올 때 울면 집에 초상이 다시 난다.)

- ㅂ. 火葬過程中加柴, 還有人死亡.
(화장할 때 땀나무를 보태면 한 사람이 더 죽는다.)

- ㅅ. 新墳見新墳, 必定還死人.
(새로 생긴 묘의 근처에 사람을 묻으면 한 사람이 더 죽는다.)

- ㅇ. 送葬忌諱回頭看.
(장례를 치를 때 뒤돌아보면 안 된다.)

- ㅈ. 送葬忌諱從原路回來.
(장례를 치르고 집에 갈 때 원래 길로 가면 안 된다.)

- ㅊ. 忌雙日下葬, 否則禍事成雙.
(짜수의 날에 매장하면 초상이 또 나게 된다.)

- ㅋ. 重喪日下葬, 還會再死一人.³⁵⁾

35) 중상일이란 일월의 갑(甲)일, 이월의 을(乙)일, 삼월의 무(戊)일, 사월의 병(丙)일, 오월의 정

(중상일에 죽은 사람을 매장하면 한 사람 더 죽는다.)

㉞. 三喪日下葬, 還會再死兩人.³⁶⁾

(삼상일 죽은 사람을 매장하면 두 사람 더 죽는다.)

㉟. 喪宴, 吃完一道菜碗碟不能重迭, 怕觸重喪彩頭.

(장례식에서 밥을 먹고 그릇을 포개면 상사가 또 생긴다.)

㊱. 下葬時穴底要平整, 對兒子不利.

(매장할 때 땅이 평평하지 않으면 아들한테 안 좋다.)

위의 예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장례에 관한 금기어는 주로 살아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4ㄴ)은 망자의 액운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을 걱정하여 생겨난 금기어로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어 금기어에서 (35ㄴ-㉟)처럼 잘못된 행위 때문에 초상이 다시 날 것을 우려해서 생겨난 금기어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그림자를 자신의 영혼으로 생각할 정도로 매우 중요시하므로 예컨대, 남의 그림자를 밟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인 것과도 같은 뜻이 여긴다. 또한 (35ㄴ)처럼 그림자가 묘지에 반사되는 것을 기피한다.

3.1.3.3. 제사에 관한 금기어

제사란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 정성을 표하는 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아래의 금기어에서는 신령을 제외한 조상에 대한 제사와 관련

(丁)일, 유월의 기(己)일, 칠월의 경(庚)경일, 팔월의 신(辛)일, 구월의 무(戊)일, 시월의 임(任)일 십일월의 계(癸)일, 십이월의 기(己)일을 가리킨다.

36) 삼상일이란 춘진일(春辰日), 하말일(夏末日), 추수일(秋戌日), 동축일(冬丑日)을 가리킨다.

된 금기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근세에서의 제사는 형식과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동일시되었던 반면, 현대에서는 핵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된 관계로 제례에 대한 형식적인 요소들이 많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유교적 사상이 남아 있는 두 나라에서는 제사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금하고자 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항상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제사의 과정에 관한 금기어, 제사 음식에 관련된 금기어, 귀신에 관련한 금기어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어 금기어>

(36) 제사의 과정에 관한 금기어

- ㄱ. 제삿날 바느질하면 조상의 영혼이 오지 않는다.
- ㄴ. 제사 지낼 때 어린아이가 울면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
- ㄷ. 제사를 사년간 안 지내다가 지내면 집안이 망한다.

(37) 제사 음식에 관한 금기어

- ㄱ.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나쁘다.
- ㄴ. 제사 음식을 먼저 먹으면 입술이 부르튼다.
- ㄷ. 제사 지낸 감주를 먹으면 귀 앓는다.

(38) 귀신에 관한 금기어

- ㄱ. 제삿날 빨랫줄을 매면 귀신이 오다 돌아간다.
- ㄴ. 제삿날 바느질하면 조상의 영혼이 오지 않는다.

<중국어 금기어>

(39) 제사의 과정에 관한 금기어

ㄱ. 靈桌上油炷燃油俗稱刺油，不要觸摸，否則身體會感導痛楚。
(위패를 모시는 탁자 위에 있는 불을 만지면 온 몸이 아프다.)

ㄴ. 家中有祭祀時，忌孩童大聲說話。
(제사를 지낼 때 아기가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된다.)

(40) 제사와 음식에 관련된 금기어

ㄱ. 忌席上擺上三個菜，俗稱過去死囚徒斬首前吃法。
(제사상에 요리를 3개만 올리면 안 된다.)

ㄴ. 黃鱔尾巴是尖的，是‘絕尾巴’。
(드렁허리³⁷⁾를 제사음식으로 사용하면 자손이 끊어진다.)

ㄷ. 祭拜祖先忌用不帶皮的肉、去搗鱗的魚，否則對祖先不恭，不孝。
(제사할 때 껍질이 없는 고기나 비늘을 없는 물고기를 쓰면 조상한테 불경하다.)

ㄹ. 泥湫，鱔魚等沒有鱗的魚，因其形狀像龍，不能用祭祀。
(미꾸라지와 드렁허리 같이 비늘이 없는 생선은 모양이 용과 비슷해서 제물로 쓰면 안 된다.)

ㅁ. 茄子不能用作祭祀。
(가지는 제물로 쓰면 안 된다.)

제사 때 음식은 차리는 형식을 조상의 영혼을 모시고 경건한 마음을 표현하는

37) 몸길이 40센티미터 이상으로 뱀장어 모양이며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가 없다. 몸빛은 적갈색 바탕에 암갈색과 흑색의 반점이 있다.

행위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말을 하면 조상의 영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예(36ㄴ), (39ㄴ)과 같은 금기어를 만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제사 때 빠질 수 없고 빠져서도 안 되는 것이 음식이라 할 수 있다. 음식을 상에 놓는 순서나 방식이 정해져 있고 제사상이 차려지면 조상의 영혼이 들어와서 음식을 드시는 것이라 여기므로 음식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 중국의 제사에 관한 금기어는 대부분 제사음식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써서는 안 되는 음식을 명시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40ㄴ-ㄹ)은 예쁘지 않거나 좋지 않은 음식을 제품으로 쓰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금기어는 조상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상의 영혼이 모든 것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의도로 생겨난 것들이 많다. 그러므로 제삿날 조상의 영혼이 오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금기어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금기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 외에 (37ㄱ)에 제시한 바와 같이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좋지 않다는 뜻은 위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금기어로 볼 수 있다. 제사가 끝나도 음식은 버려지지 않고 자손들이 먹기 때문이며 이를 ‘음복(飮福)’이라고 한다.

3.1.4. 동물과 식물에 관한 금기어

동식물은 예로부터 인간과 떨어져 살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존재이므로 이에 따른 수많은 금기어가 존재한다. 특히 인간과 더욱 밀접한 관계인 가축이나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른 금기어와 달리 동식물에 관한 금기어는 주로 꺼림의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3.1.4.1. 동물에 관한 금기어

동물은 원시 시대부터 인간에게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였다. 그 가운데 힘세고 사나운 동물은 숭배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날렵하고 작은

동물은 간사한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또한 뱀이나 고양이, 개와 같은 동물은 불길함 또는 재수 없음을 대신 나타내는 동물이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관련된 금기어가 많이 생겨난다. 이때, 역시 동물이 상징하는 언어로서 ‘동물이 특정행위를 보이면 불길하다’는 따위의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허재영 2002:94).

한·중 양국은 하나의 동물에 부여하는 감정적, 의미적 특성이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의 직종, 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하여 같은 동물을 지칭함에도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다. 그 동물은 일부만 사람들에게는 다른 감정과 상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³⁸⁾ 그래서 다음에 동물 상징 의미를 이용하는 중한 금기어를 비교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어 금기어>

(41) 고양이에 대한 금기어

- ㄱ. 고양이가 송장을 뛰어넘으면 송장이 일어선다.
- ㄴ. 고양이가 시신이 있는 방의 용마루를 넘으면 시신이 일어난다.
- ㄷ. 고양이가 아궁이에 들어가면 관이 일어선다.
- ㄹ. 고양이가 장례식 때 방고래 밑에 들어가면 송장이 일어선다.
- ㅁ. 고양이를 죽이면 고양이가 원수를 갚는다.
- ㅂ. 고양이를 죽이면 집안에 액운이 온다.
- ㅅ. 임신한 여자가 고양이를 죽이면 고양이를 닮은 애를 낳는다.
- ㅇ. 고양이가 먹던 음식을 사람이 먹으면 죽어서 고양이가 된다.
- ㅈ. 고양이가 먹던 음식을 사람이 먹으면 죽을 때 고양이 소리를 낸다.

38) 예를 들어 ‘養魚者忌將魚去頭斬尾去鱗, 俗信此舉會斷子絕孫.(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이 물고기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거나 물고기의 비늘을 긁어내면 자손이 끊어진다.)’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에게만 물고기가 금기대상이 될 수 있다.

(42) 뱀에 대한 금기어

- ㄱ. 뱀을 죽이다 말면 그 뱀이 살아나서 원수 갚으러 온다.
- ㄴ. 뱀의 발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
- ㄷ. 뱀이 감았던 호박을 먹으면 죽는다.
- ㄹ. 뱀이 집안에서 나오면 초상난다.
- ㅁ. 임신 중에 있는 여인이 구렁이가 용이 되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유산한다.

(43) 개에 관한 금기어

- ㄱ. 개가 문전의 흙을 파면 주인이 죽는다.
- ㄴ. 미친개에 물린 사람이 강을 건너면 죽는다.
- ㄷ. 정월에 난 강아지를 잡아먹으면 삼년 안에 죽는다.
- ㄹ. 사람의 코피를 개가 먹으면 그 개가 죽는다.

(44) 곤충에 관한 금기어

- ㄱ. 자벌레가 사람의 키를 넘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
- ㄴ. 이른 봄에 흰나비가 집 안에 들어오면 그 집이 초상이 난다.

(45) 새에 관한 금기어

- ㄱ. 참새가 집에 들어오면 사람이 죽는다.
- ㄴ. 까마귀가 울면 그 동네에 초상난다.
- ㄷ. 밤에 참새가 울면 초상난다.
- ㄹ. 부엉이가 울면 초상난다.
- ㅁ. 바닷가에서 멧새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

(46) 기타 동물에 관한 금기어

- ㄱ. 쥐가 이불을 갠면 상주된다.

- ㄴ. 북쪽 여우가 울면 그 동네에 초상난다.
- ㄷ. 정초(음) 오일(午日)에 일하면 자기 집 말이 죽는다.
- ㄹ. 닭이 낮에 울면 죽어야 된다. 아니면 집에 망한다.
- ㅁ. 손톱이나 발톱을 먹는 닭을 잡아먹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
- ㅂ. 농가 근처에서 두더지가 땅을 파면 병자가 죽는다.

<중국어 금기어>

(47) 고양이에 대한 금기어

- ㄱ. 人家猫進自家門, 有喪事.
(남의 집 고양이가 집안에 들어오면 초상이 난다.)

(48) 뱀에 대한 금기어

- ㄱ. 見蛇非死即傷.
(뱀을 보면 다치거나 죽는다.)
- ㄴ. 打蛇不死蛇討命.
(뱀을 덜 때려 죽이면 뱀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에게 복수한다.)

(49) 개에 관한 금기어

- ㄱ. 狗挖坑, 埋主人.
(개가 땅을 파면 주인이 죽는다.)
- ㄴ. 不能讓狗看見家里的死尸, 否則的話, 家里會再死人.
(개가 죽은 사람을 보게 되면 집안사람이 또 죽는다.)

(50) 새에 관한 금기어

ㄱ. 門前烏鴉叫, 主有喪事.
(집 앞에서 까마귀가 울면 집주인이 죽는다.)

ㄴ. 猫頭鷹夜叫, 預示死人.
(부엉이가 밤에 울면 사람이 죽는다.)

(51) 기타 동물에 관한 금기어

ㄱ. 打竹鼠, 家人遇難.
(쥐를 때리면 가족들이 죽는다.)

ㄴ. 衣服被畜生踩, 非死及病.
(옷을 짐승한테 밟으면 아프거나 죽는다.)

ㄷ. 母鷄司晨, 家有喪事.
(수탉이 울면 집에 초상이 난다.)

ㄹ. 養魚者忌將魚去頭斬尾去鱗, 俗信此舉會斷子絕孫.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이 물고기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거나 물고기의 비늘을 긁어내면 자손이 끊어진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는 고양이에 대해 금기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고양이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면서도 요물로 여겨지는 탓일 것이다. 이는 고양이는 푸른 눈과 날카로운 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날렵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주인에게 해를 입히는 고양이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41ㄷ)에서 보듯이 고양이와 사람의 초상에 대한 금기어가 다수인데 중국에 존재하는 금기어와 다를 바 없다. 다음으로는 고양이 흉내를 내든가 하는 행위를 하면 고양이를 닮는다는 내

용도 보인다.

뱀 또한 상서롭지 못한 동물 중의 하나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뱀은 흉물스럽고 꺼림칙한 동물로 취급받고 있다. 중국어 금기어를 보면 뱀 자체를 쳐다보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으로 봐서 매우 흉한 동물로 취급됨을 알 수 있다. (42ㄱ)과 (48ㄴ)에서는 뱀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보인다.

개는 고양이와 더불어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임에 틀림없다. 전통적으로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개가 하는 행동에 따라 주인에게 해가 된다는 내용이 한국과 중국 모두의 금기어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한국어 금기어에는 중국어 금기어에 보이지 않는 개의 죽음에 대해서도 금기시하는 것들이 보인다.

고양이, 뱀, 개 이외에도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동물들에 대한 금기어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흉조로 분류되는 까마귀와 부엉이다. 까마귀는 겉모습에서도 불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울음소리로 말미암아 공포감을 더 느낀다. ‘까아악, 까아악’ 하는 울음소리가 마을을 뒤덮으면 왠지 사람들 마음은 소름 속에 빠져든다. 이뿐만 아니라 까마귀는 색채 감각으로 단색 계통의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검은색은 인간의 마음을 억압할 수 있다. 또한 까마귀의 식성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접 사냥을 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죽은 고기와 같은 것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까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꺼림칙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예를 들어, (45ㄴ)과 (50ㄱ)은 이에 해당하는 예들이며 이런 예를 통해서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에는 내용이 일치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1.4.2. 식물에 관한 금기어

식물에 관한 금기어는 대부분 나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무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상징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상징은 모양이나 성질에 따라 나타

난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나무을 나타내는 낱말은 일상적인 낱말과 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어 금기어>

- (52) ㄱ. 대나무로 만든 물건으로 사람을 때리면 말라서 죽는다.
ㄴ. 참나무로 얻어맞으면 말라서 죽는다.
ㄷ. 나무를 잘 타는 높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
ㄹ. 대나무 밭에 대가 말라죽으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사람이 많이 죽는다.
ㅁ. 소나무 순이 많이 죽으면 그 해 사람이 많이 죽는다.
ㅂ. 큰 나무를 베는 사람은 죽는다.

<중국어 금기어>

- (53) ㄱ. 房屋前院不栽桑.³⁹⁾
(집 앞에 마당에 뽕나무를 심지 않는다.)
ㄴ. 房屋後院不栽柳.⁴⁰⁾
(집 뒤에 버드나무를 심지 않는다.)
ㄷ. 竹子開花, 家破人亡.⁴¹⁾
(대나무 꽃이 피면 집안이 망해 식구들이 다 죽는다.)

39) 任驄(2004:304)에서는 뽕나무는 중국어 발음이 상(桑)이라고 하며 상(喪)과 발음이 같다. 집 앞에 뽕나무를 심으면 나가자마자 상(喪)을 보면 불길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40) 장례에서 쓰는 일부 물건이 버드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버드나무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심으면 불길하다고 생각한다. 이뿐만 아니라 버드나무는 씨를 맺지 않으므로 집 뒤에 심으면 자손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任驄 2004:304).

41) 대나무는 땅 속 줄기에서 영양을 섭취하여 자라는 식물이며 충해(蟲害)가 있거나 가뭄으로 말라 죽기 전에만 꽃이 핀다. 그러므로 대나무가 꽃이 피는 현상을 사람의 죽음과 연관시켰다.

- ㄹ. 忌院中种梅, 俗以爲梅花屬媚, 主人沾花, 克妻敗家.
(정원에 매화를 심으면 남자 주인이 여색을 탐하고 부인을 죽인다.)
- ㅁ. 忌在宅旁种栢樹.⁴²⁾
(집 옆에 측백나무를 심으면 불길하다.)
- ㅂ. 樹不能种在朝南窓前的正中央, 不然要傷人或死人的.
(나무를 남쪽 창문 앞의 가운데에 심으면 사람이 죽는다.)
- ㅅ. 樹不能在立冬之前坎或截枝, 不然傷人或死人的.
(나무를 입동 전에 베거나 가지치기를 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다.)

식물에 관한 금기어는 주로 나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무는 예로부터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식물이고 심지어 사람들은 나무가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한국에서는 미신과 결합된 당산나무와 고조선의 성물인 신단수 등이 존재한다. 나무를 신성시 하는 사람들은 나무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세상에 큰일이 생긴다고 믿었다. 이를 조심하는 데서 나무에 관한 금기어들이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52ㄹ)과 (53ㄷ)에서 본대로 나무의 상태에 따라 액운이 몰려온다는 내용으로 앞날을 직감하고 방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 본다면 나무는 ‘생명’ 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52ㄷ)과 같이 나무를 훼손하면 벌을 받는다는 제약으로 신성한 나무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달리 (52ㄴ)은 대나무가 매우 곧고 길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곧 대나무처럼 말라죽을 것이니 대나무로는 회초리를 삼지 말라는 뜻이다(허재영 2002:124). 그 밖에 중국어 금기어에서는 (53ㄹ, ㅂ)과 같이 식수에 관한 여러 가지 금기어가 눈에 띈다.

42) 측백나무는 죽은 사람을 상징한다.

3.1.5. 의식주에 관한 금기어

의식주는 입고 먹고 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옷과 밥,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다. 이에 따라 의식주에 관한 금기어는 실제 입고 먹고 자는 데서 다 나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서는 입을 것, 먹을 것, 그리고 집과 관련된 금기어를 다루고자 한다.

3.1.5.1. 옷에 관한 금기어

의식주는 사람이 살면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그중에 ‘의’에 해당하는 옷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고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옷은 몸을 가려 주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됨됨이가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잘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다루어진 옷에 관한 금기어는 대부분 이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금기어>

- (54) ㄱ. 남의 옷을 먼저 입어보면 대신 죽는다.
 ㄴ. 옷의 이를 돌이서 잡으면 사람이 죽는다.
 ㄷ. 햇볕에 말리는 옷이 선풍(旋風)에 날아가면 그 옷의 임자가 죽는다.
 ㄹ. 상주가 새 옷을 입으면 부모님 저승길이 어둡다.
 ㅁ. 수의에 바늘을 넣으면 불길하다.
 ㅂ. 신 끝에 불을 붙이면 죽을 때 말을 못하고 죽는다.

<중국어 금기어>

(55) ㄱ. 忌將衣服反穿着，詛咒自己的親人死去.

(옷을 거꾸로 입으면 가족들이 죽는다.)

ㄴ. 忌諱晾曬干的衣服不疊好放一段時間就直接穿在身上，會變成鬼.

(말린 옷을 개어두지 않고 바로 입으면 귀신이 된다.)

위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은 옷을 예절에 맞게 입어야 한다는 금기어들이 있다. 예를 들어 (54ㄹ)은 장례에 관련된 금기어에서도 언급한 대로 상주가 복상기간에 새 옷을 입으면 예의가 없음을 뜻한다. 중국어의 경우는 (55 ㄱ)처럼 옷을 바르게 입지 않으면 액운이 온다는 뜻의 금기어가 많이 존재한다.

3.1.5.2. 음식에 관한 금기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먹는 일이다. 음식이야말로 한 나라나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알맞다. 음식은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든 모든 것'을 가리킨다. 즉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식에 관한 금기어는 음식을 먹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분류하여 그 예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1) 먹는 행위에 관한 금기어

(56) ㄱ. 밥그릇을 상 밑에 놓으면 죽어서 객귀가 된다.

ㄴ. 밥상 앞에서 울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ㄷ. 밥상 위에 행주를 올려놓으면 물에 빠져 죽는다.

- ㄹ. 밥을 먹다가 손가락 잡고 한숨 쉬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
- ㅁ. 밥 먹고 나서 곧 자리에 누우면 죽어서 소가 된다.
- ㅂ. 참외로 얻어맞으면 쉬이 죽는다.
- ㅅ. 복숭아 먹고 곡 목욕하면 죽는다.
- ㅇ. 변소에 빠진 사람이 떡 해 먹지 않으면 죽는다.
- ㅈ. 남의 곡식을 먼저 따먹으면 죽어서 소가 되어 3년을 농사짓다 다시 사람이 된다.
- ㅊ. 남의 호박을 몰래 따오면 죽을 때 부어 죽는다.

위에 나열된 금기어를 보면 한국어 금기어만 있다. 이는 한국에서 유난히 식사 예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의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금기어에서도 다루었듯이 밥상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대부분이고 (56쪽)처럼 타인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교훈적인 금기어도 보인다.

2) 금기 음식

<한국어 금기어>

- (57) ㄱ. 가재 먹고 사탕 먹으면 죽는다.
 ㄴ. 개 먹고 사탕 먹으면 죽는다.
 ㄷ. 땡감 먹고 기름이 먹으면 죽는다.

<중국어 금기어>

- (58) ㄱ. 魚子与豬肝忌同食 食之危險.
 (생선 알과 돼지 간을 같이 먹으면 죽는다.)

- ㄴ. 葱与蜜忌同食 食之危險.
(파와 꿀을 같이 먹으면 죽는다.)
- ㄷ. 花生與黃瓜忌同食 食之危險.
(땅콩과 오이를 같이 먹으면 죽는다.)
- ㄹ. 柿子與蚘蟹忌同食 食之危險.
(감과 게를 같이 먹으면 죽는다.)
- ㅁ. 燒酒與生姜忌同食 食之危險.
(소주와 생강을 같이 먹으면 죽는다.)
- ㅂ. 公鷄與韭菜忌同食 食之危險.
(수탉과 부추를 같이 먹으면 죽는다.)
- ㅅ. 吃秋薑會早死.
(가을 생강을 먹으면 죽는다.)

위 음식에 관한 금기어에서는 특별하게 보여 지는 것은 없지만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금기어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려는 음식과 음식의 궁합 또는 방법들이라고 생각된다.

3.1.5.3 집에 관한 금기어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 요소 중에 집이 있다. 집은 사람이 들어서 살거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집은 대체적으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안락함이 있어야

집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주거 형태가 많이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금기시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래의 금기어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국어 금기어>

(59) ㄱ. 제비가 대들보 안에서 집을 짓고 살다가 죽거나 이사하면 그 집이 망한다.

ㄴ. 기둥이 쓰러지면 자식이 죽는다.

ㄷ. 대들보가 소리를 내면 주인이 죽는다.

<중국어 금기어>

(60) ㄱ. 房屋大門與隣家門窗相對，家中連續出現喪事。

(대문이 이웃집의 문이나 창문과 서로 마주 향하면 집에 줄초상이 난다.)

ㄴ. 房檐滴水滴門楣，一年之內死一雙。

(주택의 처마에 물이 떨어지면 일 년 안에 집안 식구가 두 명이 죽는다.)

ㄷ. 建房向西北，家破人亡。

(서쪽이나 북쪽을 향해 집을 지으면 집이 망하고 집안 식구가 죽는다.)

ㄹ. 房子的東南處不能單獨蓋小屋，要傷人或死人的。

(집의 동남쪽에서 작은 집을 따로 지으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다.)

- ㄷ. 四六不通脊, 通脊死閨女.
(집을 지을 때 용마루를 네 개나 여섯 개를 사용하면 딸이 죽는다.)
- ㄹ. 卽宅地忌往西邊擴大, 會害于宅神, 或有死亡事發生.
(집을 서쪽으로 넓히면 초상이 나거나 일이 생긴다.)
- ㅅ. 翻盖房子宁向前赶一山, 不向後赶一磚, 往後赶死老人.
(집을 다시 지을 때 뒤로 넓히면 집안 어른이 돌아가신다.)
- ㅇ. 房子的東南處不能挖墳頭(坑), 要傷人或死人的.
(집 동남쪽의 땅을 파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다.)

위 금기어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집의 방향이다. 한국에서는 남향으로 집을 지어야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태양광을 잘 받아 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60ㄷ)에서 보이듯이 중국에서도 남향의 집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국과 중국 모두 풍수지리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59ㄷ)과 (60ㄷ)을 통해 용마루나 대들보와 같이 집의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나라 모두 금기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1.5.4. 기타 금기어

생활 속에서 금기어가 생겨나듯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생활용품에 특별한 의미를 담는 경우도 있다. 물건은 각각 쓰임새가 있는데, 이에 어긋나면 물건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태를 경계하기 위해 금기어를 만들기도 한다(허재영 2002:56). 앞의 금기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잠잘 때 쓰는 베개, 옷 등이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뿐만 아니라 옷을 껴낼 때 쓰는 실, 주방용품 등에 관한 금기어도 존재한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금기어>

- (61) ㄱ. 누워서 실을 가지고 놀면 오래 앓다가 죽는다.
ㄴ. 지계를 방문 앞에 세워놓으면 사람이 죽는다.
ㄷ. 기름병을 입으로 핥으면 죽을 때 유언을 못하고 죽는다.
ㄹ. 남의 앞치마에 손을 씻으면 죽어서 그 사람의 종이 된다.

<중국어 금기어>

- (62) ㄱ. 出門在外，陽傘不能倒拿。⁴³⁾
(밖에 나갈 때 우산을 거꾸로 들고 다니면 안 된다.)

ㄴ. 忌以鍾送人。
[중(鍾)은 종(終)과 발음이 같아서 선물로 주면 안 된다.]

ㄷ. 床底下不能用盆盛水。⁴⁴⁾
(침대 밑 대야에 물을 담으면 불길하다.)

ㄹ. 筷子一長一短，表示三長兩短，預死亡。
(젓가락의 길이가 다른 것을 사용하면 사람이 죽는다.)

ㅁ. 弄倒香油瓶，家中有喪事。
(참기름을 담은 병을 엎으면 집에 초상이 난다.)

43) 집에 초상이 났을 때 우산을 거꾸로 들고 다닌다.

44) 죽은 사람의 상례와 장례 때 대야에 물을 담아 관 밑에 둔다.

ㄷ. 忌燒床鋪草.⁴⁵⁾

(살아 있는 사람의 침상에 까는 풀을 태우면 불길하다.)

위의 금기어들에서는 주로 물건을 갖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62ㄴ)은 한자 중에 동음다의어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3.1.6. 기타 행위에 관한 금기어

한국과 중국은 예법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이며 예법을 위배하는 행동을 하면 남들로부터 비난받는다. 또한 특정 행동을 하면 몸에 해로움이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경계하기 위해 금기어를 만들기도 한다.

<한국어 금기어>

(63) ㄱ.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면 방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

ㄴ. 밤에 손톱을 깎아서 변소에 넣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

ㄷ. 변소에 3번 빠지면 그 사람이 죽는다.

ㄹ. 겨울에 먼 길 가다가 앉아 쉬면 얼어 죽는다.

ㅁ. 나이를 늘이거나 줄이면 빨리 죽는다.

ㅂ.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다.

ㅅ. 자는 사람의 얼굴에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이 죽는다.

ㅇ. 남의 피를 훔치면 죽어서 기름 솔에 들어간다.

ㅈ. 사람이 이어서 드러누우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

ㅊ. 한 사람의 머리를 둘이 빗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

45) 사람이 죽으면 죽기 전에 침대에 까는 풀을 태워야 하고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의 침상에 까는 풀을 태우면 불길하다.

<중국어 금기어>

(64) ㄱ. 在墳墓地便溺, 暴死.

(묘지 주변에서 대소변을 보면 돌연사한다.)

ㄴ. 有人離家忌掃地, 否則離家人死亡.

(집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 땅을 쓸면 안 들어온 사람이 죽는다.)

ㄷ. 用堅韌物指人, 堅韌物的尖會長長, 致此人死.

(뾰족한 물건으로 사람을 가리키면 물건의 뾰족한 부분이 길어져서 그 사람을 죽인다.)

ㄹ. 忌用手指星月 會有亡命之災.

(손가락으로 별이나 달을 가리키면 죽는다.)

ㅁ. 禁忌提到凶禍一類的字眼, 惟恐凶禍真正來臨.

[흉(凶)과 화(禍)를 언급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ㅂ. 忌諱提及死亡事.

(집안에 상을 당한 사람한테 상사에 대해 물어보면 안 된다.)

ㅅ. 辰日哭, 有重喪.

(새벽에 울면 집에 큰 초상이 난다.)

ㅇ. 未滿36歲死者, 來世壽命更短.

(나이가 36세 미만인 사람이 죽으면 내세에 수명이 더 짧다.)

위의 금기어에서 보이듯이 한국과 중국 모두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금기하는 것으로 누구나 지켜야 할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63ㄴ)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사람과 밀접하게 쓰이는 금기어이고 (64ㄴ)과 같은 중국의 금기어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의미가 다수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3.2. 금기어의 문형 비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기어의 유형은 어휘적 금기어와 통사적 금기어로 나눌 수 있는데 통사적 금기어는 주로 두 개의 문장이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형식 논리학(形式論理學)에서 말하는 가언판단(假言判斷)의 문형으로 표현한다. 앞부분은 종속절(從屬節)이고 뒷부분은 본절(本節)이다. 기본적인 문형은 ‘A가 B하면 C가 D한다.’와 같이 공식화(公式化)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간단한 문장이라도 반드시 기본 문형과 같은 문장으로 환원(還元)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사적 금기어의 문형은 (2)에서 제시한 대로 4 가지가 있다. 편의상 네 가지 문형을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65) ㄱ. A형: B하면 D한다.
 ㄴ. B형: A가 B하면 D한다.
 ㄷ. C형: B하면 C가 D한다.
 ㄹ. D형: A가 B하면 C가 D한다. (기본 문형)

이와 같은 네 가지 문형이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에서 어떠한 빈도와 비중을 보이는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 문형 비교

금기어의 내용	한국				중국			
	A형	B형	C형	D형	A형	B형	C형	D형
부모에 관한 금기어	1		24	4			6	3
부부에 관한 금기어	1		3	1	3		4	6
자식에 관한 금기어		2	1	6			5	1
여성에 관한 금기어	6	4	3	3		3		5
명절에 관한 금기어	4				2	2	3	1
초상에 관한 금기어	7		1		11		3	4
장례에 관한 금기어	5	3			4		7	3
제사에 관한 금기어	3	2	2	1	4	2	1	
동물에 관한 금기어	4	8	4	15	2	1	2	6
식물에 관한 금기어	4	1		1	1	2	2	2
옷에 관한 금기어	4		1	1		1	1	
음식에 관한 금기어	10	1	2		7			
집에 관한 금기어				3	1		5	2
기타 금기어	2		2		5		1	
기타행위에 관한 금기어	4		4	2	5	1	2	
각 문형의 수	55	21	47	37	45	12	42	33
각 문형이 차지하는 비율 (%)	34.4	13.1	29.3	23.2	34.1	9.1	31.8	25

〈표 7〉을 살펴보면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의 문형은 모두 ‘A형>C형>D형>B형’ 순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A형과 B형으로 이루어진 금기어는 한국어 금기어에서 더 많이 있는 반면 C형과 D형으로 이루어진 금기어는 중국어 금기어에서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3. 금기어의 수사법 비교

앞에 제시한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를 살펴보면 중국어 금기어는 음운 총위, 통사 총위, 의미 총위에 따른 수사법을 쓰는 금기어가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통사 총위에 따른 수사법을 사용하는 금기어만 보인다. 이는 첨가어인 한국어에서

는 금기어의 문형과 한국어 문장의 기본 구조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수사법에 대하여 언어학의 관점에서 크게 음운 총위, 통사 총위, 의미 총위로 나누어서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3.1. 한국어 금기어에서 쓰이는 수사법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어 금기어에서 쓰이는 수사법은 통사 총위에 따른 반복법이다. 반복법은 뜻이 같거나 비슷한 낱말 또는 어구나 문장을 되풀이하여 사용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반복법은 명사와 명사 결합 반복, 연속 반복과 사이 뜬 반복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한국어 금기어에서는 주로 사이 뜬 반복이 많이 나타나는데, 강조적인 표현에 쓰이고 운율도 조율한다.

- (66) ㄱ. 상여를 메고 나가면서 무겁다고 하면 더 무거워진다.
 ㄴ. 상여 메고 나갈 때 피가 흐른다고 하면 더 흐른다.

예문 (66ㄱ)의 ‘무겁다’와 (66ㄴ)의 ‘흐르다’ 처럼 서술어 위치에 사이 뜬 반복수사법이 많이 쓰인다.

3.3.2. 중국어 금기어에서 쓰이는 수사법

중국어 금기어에서 사용하는 수사법은 각운법(脚韻法), 교차배열법(交叉排列法), 쌍관법(雙關法) 등 세 가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운법이란 음운 총위에 따른 수사법⁴⁶⁾에 해당하며 한 문장 안에서 한 낱말의 마지막 자음이 서로 일치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각운법은 자음

46) 앞에서 제시한 대로 음운 총위에 따른 수사법은 중간 휴식법, 가음법, 약음법, 두운법, 모운법, 말운법, 각운법, 의성법, 의태법, 호음조법, 오음조법 등이 있다.

앞의 모음이 반드시 서로 달라야 하고 모음을 앞뒤에 사용하는 두 자음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67) ㄱ. 女婿上床(chuang), 家破人亡(wang).

ㄴ. 回家過重陽(yang), 死她婆婆娘(niang).

ㄷ. 房檐滴水滴門幫(bang), 一年之內死一雙(shuang).

ㄹ. 雨打棺材蓋(gai), 子孫沒有被褥蓋(gai).

ㅁ. 新墳見新墳(fen), 必定還死人(ren).

(67ㄱ, ㄷ)을 분석해 보면 중국어의 운모 ‘ang’ 이 압운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67ㄹ, ㅁ)을 살펴보면 각각 운모 ‘ai’, ‘en’ 이 압운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차배열법이다. 이는 통사적 층위에서 활용한⁴⁷⁾ 수사법의 범위에서 다를 수 있다. 교차배열법은 앞 문장이나 구절에 있는 낱말이나 구절을 뒷문장이나 구절과 교묘하게 바꾸어 쓰는 수사법을 말한다. 즉 교차배열법은 앞에서는 ‘A...B’ 라고 말하고 뒤에 와서는 ‘B...A’ 라고 말하는 수사법이다(계효하 2012:58).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8) 百里行房事者病, 行房百里者死.

이는 앞부분에서 백리(百里)를 ‘A’ 로 보고, 행방(行房)을 ‘B’ 로 보면 뒷

47) 통사 층위에 활용하는 수사법은 언어학의 통사적 측면에 무게를 실는다. 비교법, 전치법, 치환법, 교차배열법, 역순법, 열거법, 반복법, 점층법, 점강법, 급락법, 연쇄법, 제시법, 추가법, 생략법, 돈절법, 쌍서법, 등은 통사층위에 따른 가장 대표적인 수사법이다.

부분에서는 행방은 ‘A’가 되고 백리는 ‘B’가 된다.

중국어 금기어에서 쓰이는 또 다른 수사법은 쌍관법이다. 쌍관법은 의미 층위에 따른 수사법에 해당하는 것으로,⁴⁸⁾ “발음이 같거나 의미가 여러 개인 단어의 조건을 이용하여 단어나 문장이 글자 자체의 의미 이외의 의미를 가질 때는 본래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에 중점을 둔다.⁴⁹⁾” 이것을 문장에 사용하여 이중의 의미로 해석하도록 하는 기법, 즉 일종의 중의법이라고 볼 수 있다. 쌍관법은 결국 글자의 소리와 뜻으로 말장난을 하여 두 가지로 해석되는 말을 만드는 것이다. 쌍관법의 종류로는 크게 해음쌍관(諧音雙關)과 어의쌍관(語義雙關)⁵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어 금기어에서는 주로 해음쌍관이 많이 쓰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9) ㄱ. 用段子做壽衣, 斷子絕孫.

ㄴ. 忌以鍾送人.

위의 예문 가운데 (69ㄱ)에서는 ‘段子(비단)’과 ‘斷子(자손이 끊어지다)’는 둘의 발음이 ‘duan’ zi’로서, (69ㄴ)의 ‘鍾(시계)’과 ‘終(끝)’의 발음이 ‘zhong’으로서 다 같으므로 이러한 점이 쌍관을 성립시켰으므로 해음쌍관법에 해당한다.

48) 의미 층위에 활용하는 수사법에는 은유법과 환유법을 비롯하여 직유법, 제유법, 의인법, 의물법, 반어법, 역설법, 동음이의어법, 풍유법 등 따위가 속한다(계효하2012:70).

49) <漢語修辭格大辭典>(1989:489)에서는 ‘借助詞語同音或多義的條件, 使一個詞語或句子同時兼有字面和字外兩層意思, 并以字外意思為重點.’라고 정의한다.

50) 발음이 같거나 유사한 동음자를 사용하여 상이한 의미를 나타내게 하는 경우를 해음쌍관이라고 하며 문장의 표층심층의미를 고려하여 동형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어의쌍관이라고 한다.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 가운데 죽음에 관한 금기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에 있다. 금기어에 관한 기존 연구의 성과는 적지 않지만 통사적 금기어의 문형과 수사법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본고는 금기어와 수사법의 개념 및 유형을 정리하여 의미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죽음에 관한 금기어를 사람과 관련된 금기어, 명절과 관련된 금기어, 초상·장례·제사와 관련된 금기어, 동물과 관련된 금기어, 의식주와 관련된 금기어, 기타 행동과 관련된 금기어 등 여섯 가지로 나누어 금기어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다음 앞의 내용을 토대로 금기어의 문형과 수사법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금기어의 개념과 범위를 찾아 정리하였다. 즉 ‘금기어란 기피하는 것에 대해 경계(警戒)와 주의를 시키고, 금지와 기휘를 일으켜 어떠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말들을 가리킨다.’ 금기어의 유형은 어휘적금기어와 통사적금기어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주로 통사적금기어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금기어의 내용 면에서 보면 두 나라 모두 예로부터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금기어의 양상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차이점도 몇 가지 부분에서 존재한다.

첫째, 한국과 중국 모두 부모님과 관련된 금기어에서는 크게 다른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해야 하는 것들을 명시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효에 대한 사상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과 달리 금기어의 종류 면에서 한국에 다양한 금기어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라는 표현이 휘로 인정된다. 따라서 중국어 금기어에서는 ‘부모님’ 대신 ‘어른’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부에 관한 금기어에서는 두 나라 모두 부부간에 지켜야 할 사항들을 금기어로 만들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은 한국과 달리 결혼식에 관한 금기어도 많이 존재한다.

셋째, 초상 장례 제사에 관한 금기어는 두 나라 똑같이 망자를 존중하는 마음과 살아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겨난 것들이다. 하지만 한국어 금기어에서는 나쁜 것을 피하는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중국어 금기어는 초상이 일어난 이웃을 배려해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어 금기어의 내용은 주로 장례식에 갔다 오면 망자의 액운이 자신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걱정하여 생겨난 금기어가 존재하는 반면 중국어 금기어는 잘못된 행위 때문에 초상이 다시 날것을 우려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그 밖에 명절과 관련된 금기어, 동식물과 관련된 금기어, 의식주에 관련된 금기어, 기타행위에 관련된 금기어 등은 두 나라 금기어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은 동일한 동아시아권에 속하고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하고 있어서 긴밀한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교류를 해온 결과로 보인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유교와 불교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금기어문형 면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의 문형은 모두 'A형(B하면 D한다.) > C형(B하면 C가 D한다.) > D형(A가 B하면 C가 D한다.) > B형(A가 B하면 D한다.)'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A형과 B형으로 구성된 금기어는 한국어 금기어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반면 C형과 D형으로 이루어진 금기어는 중국어 금기어에서 더 많이 존재한다.

또한 수사법에 대해 중국어 금기어에서는 각운법, 교차배열법, 쌍관법을 쓰는 금기어가 보인다. 예를 들어 '新墳見新墳(fen), 必定還死人(ren).' 은 운모 'en' 이 압운을 이룬다는 것이며 각운법을 사용하는 예에 해당할 수 있다. '百里行房事者病, 行房百里者死.' 는 앞부분이 백리(百里)는 'A' 로 보고, 행방(行房)는 'B' 로 보면 뒷부분의 행방은 'A' 가 되고 백리는 'B' 가 되어

교차배열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忌以鐘送人.’ 에서 鐘(시계)’ 과 ‘終(끝)’ 의 발음이 ‘zhong’ 으로서 서로 같기 때문에 쌍관이 성립되었으므로 해음 쌍관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어 금기어에서는 통사층위에 따른 반복법만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첨가어인 한국어는 금기어의 문형과 한국어 문장의 기본 구조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여를 메고 나갈 때 피가 흐른다고 하면 더 흐른다.’ 에서 서술어 ‘흐르다’ 는 위치에 사이 뜯 반복이며 사이 뜯 반복법에 해당한다.

이상으로 죽음에 관한 한국어와 중국어 금기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죽음에 관한 금기어를 비교 분석했는데 두 나라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본다. 금기어 가운데 다른 주제에 관한 것도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그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계효하(2012), 「한·중 속담 비교연구-수사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상명대학교 대학원).
- 김선풍(1994), 「韓國人の 禁忌語와 禁忌談」, 『語文論集』 23, 중앙어문학회, pp.53~68.
- 金聖培(1962a), 「한국금기어고(上)」, 『국어국문학』 25, 국어국문학회, pp.219~234.
- 金聖培(1962b), 「한국금기어고(下)」,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회, pp.239~268.
- 김옥동(2002),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 김종수(2000), 「금기와 사전에 나타난 금기어」, 『獨語教育』 20-1, 한국국어독문학교육학회, pp.251~271.
- 김주영(2008), 「중국어의 언어금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계명대학교 대학원).
- 唐松波, 黄建霖(1989), 『漢語修辭格大辭典』, 中國國際广播出版社.
- 黎運漢·張維耿(1986), 『現代漢語修辭學』, 商務印書館香港分館.
- 刘清波(2003), 『禁忌·禁忌語·委婉語』, 段都學刊, 第2期.
- 万建中(2005), 『中國民間禁忌風俗』, 中國電影出版社.
- 문희선(2002), 「중국 광고언어에 대한 수사학적 고찰과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효근(1962), 「韓國의 禁忌語」, 『人文科學』 8, 연세대학교 인문연구원, pp.1~25.
- 박영준(2004), 「한국어 금기어 연구」, 『우리말연구』 15, 우리말학회, pp.79~105.
- 박정열·최상진(2003), 「금기어(禁忌語)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심층심리 탐색」, 『한국 심리학회지』 22-1, 한국 심리학회, pp.45~61.

- 백승잔(2013), 「한국 대중음악 가사에 나타난 수사법의 시대적 사용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상명대학교 대학원).
- 심재기(1970), 「禁忌 및 禁忌談의 意味論的 考察」, 『論文集』 2,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pp.1~30.
- 심재기(1983), 「국어 문장의 바른길 찾기를 위한 어휘론적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8-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109~128.
- 楊德峰(1999), 『漢語与文化交際』, 北京大學出版社.
- 양태중(1992), 「고대의 수사학 정의들에 대하여」, 『독일학 연구』 8, 부산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pp.101~116.
- 嚴麗(2009), 「韓中禁忌語對比研究」, 석사학위논문(復旦大學).
- 吳穎(1996), 「關於禁忌語與委婉語的區別與聯繫」, 『洛陽大學學報』, 第11卷第1期.
- 왕소단(2010),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의 대비 연구」, 석사학위논문(충남대학교 대학원).
- 云中天(2006), 『永遠的風景-中國民俗文化』, 百花洲文藝出版社.
- 柳炳泰(1985), 「禁忌語와 婉曲語法의 言語學的 役割」, 『關大論文集』 13-1, 관동대학교, pp. 213~229.
- 윤학중(2011), 「죽음에 관한 韓日 禁忌語 研究」, 석사학위논문(전남대학교 대학원).
- 李旻秦(2011), 「中韓禁忌語比較研究」, 석사학위논문(山東大學).
- 李行建(2010), 『현대한어규범사전(現代漢語規範詞典)』, 外語教學与研究出版社 語文出版社.
- 任騁(2004), 『中國民間禁忌』,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張弓(1963) 『漢語修辭學著作』, 天津人民出版社出版.
- 전하(2009), 「중한 광고 표제어의 수사법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호서대학교 대학원)
- 田兰玉(2006), 「漢語死亡累禁忌語研究」, 『중국어문학논집』 41, 중국어문학연

- 구회, pp. 205~226.
- 조영구(2006), 「중국어 금기어와 그 교육적 활용 연구」, 석사학위논문(한국외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희무(2008), 「漢語禁忌研究」, 『中國人文科學』 40, 중국인문과학회, pp.81~100.
- 진 신(2012), 「한·중 금기어의 변형 양상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 대학원).
- 陳望道(1932), 『修辭學發凡』 大江書鋪.
- 진성기(1973), 「濟州道の 禁忌語研究」 『韓國民俗學』 6-1, 한국민속학회, pp. 93~97.
- 최승희·김수옥(1995), 『심리학 개론』, 박영사.
- 한명숙(2008), 「해음에 나타난 중국문화 고찰」, 석사학위논문(목포대학교 대학원).
- 허재영(2001), 「금기어의 구조 및 발생 요인」, 『사회언어학』 9-1, 한국사회언어학회, pp.193~217.
- 허재영(2002), 『생활 속의 금기어 이야기』, 한국학술정보.
- Sigmund Freud, 김종엽 옮김(1995), 『토텐과 타부』, 문예마당, pp.43~44.
- Ullmann Stephen(1962),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 Corbett, E. P. J.(1971), 「Classical Rhetoric for the modern student」, 『New York : OxfordUniversity Predd』, pp. 31~32.

〈부 록〉

한국어 금기어

가재 먹고 사탕 먹으면 죽는다.

갓 결혼한 색시 손이 북어 가시에 찔리면 죽는다.

개가 문전의 흙을 파면 주인이 죽는다.

게먹고 사탕 먹으면 죽는다.

겨울에 먼 길 가다가 앉아 쉬면 얼어 죽는다.

결혼식 첫날밤 먼저 자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고양이가 먹던 음식을 사람이 먹으면 죽어서 고양이가 된다.

고양이가 먹던 음식을 사람이 먹으면 죽을 때 고양이 소리를 낸다.

고양이가 송장을 뛰어넘으면 송장이 일어선다.

고양이가 시신이 있는 방의 용마루를 넘으면 시신이 일어난다.

고양이가 아궁이에 들어가면 관이 일어선다.

고양이가 장례식 때 방고래 밑에 들어가면 송장이 일어선다.

고양이를 죽이면 고양이가 원수를 갚는다.

고양이를 죽이면 집안에 액운이 온다.

관이 방에서 나갈 때 문지방에 닿으면 불길하다.

기동이 쓰러지면 자식이 죽는다.

기름병을 입으로 핥으면 죽을 때 유언을 못하고 죽는다.

까마귀가 울면 그 동네에 초상난다.

나무를 잘 타는 놨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

나이를 늘이거나 줄이면 빨리 죽는다.

날쌔를 먹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남의 곡식을 먼저 따먹으면 죽어서 소가 되어 3년을 농사짓다 다시 사람이 된다.

남의 앞치마에 손을 씻으면 죽어서 그 사람의 종이 된다.
 남의 옷을 먼저 입어보면 대신 죽는다.
 남의 피를 훔치면 죽어서 기름 솔에 들어간다.
 남의 호박을 몰래 따오면 죽을 때 부어 죽는다.
 농가 근처에서 두더지가 땅을 파면 병자가 죽는다.
 누워서 실을 가지고 놀면 오래 앓다가 죽는다.
 닭이 낮에 울면 죽어야 된다. 아니면 집에 망한다.
 대나무로 만든 물건으로 사람을 때리면 말라서 죽는다.
 대나무밭에 대가 말라죽으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사람이 많이 죽는다.
 대들보가 소리를 내면 주인이 죽는다.
 대지팡이를 짚고 넘어지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동네에서 초상이 났을 때 머리를 감으면 해롭다.
 동네에서 초상이 났을 때 머리를 빗으면 불길하다.
 동네에서 초상이 났을 때 바느질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동네에서 초상이 났을 때 팔밥을 먹지 않는다.
 두 손을 목에 베고 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둘째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길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
 뒤통수를 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뒷머리를 갈라 빗으면 남편이 죽는다.
 땅을 파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땡감 먹고 기름이 먹으면 죽는다.
 머리를 아랫목으로 두고 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머리를 풀고 다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명절날 일하면 어린 자식 두고 죽는다.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면 방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
 미친개에 물린 사람이 강에 건너면 죽는다.

바늘에 실 꿰어 주고 실매듭 지어 주면 지옥에 가서 풀어 달라고 한다.
 바닷가에서 멧새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
 반지를 둘째손가락에 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밤에 다리미 빌려주면 자기 딸이 빨리 죽는다.
 밤에 머리를 감으면 새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밤에 머리를 빗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밤에 손톱, 발톱을 깎으면 부모님 임종을 지키지 못한다.
 밤에 손톱을 깎아서 변소에 넣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
 밤에 참새가 울면 초상난다.
 밥 먹고 나서 곧 자리에 누우면 죽어서 소가 된다.
 밥그릇을 상 밑에 놓으면 죽어서 객귀가 된다.
 밥사발을 포개 놓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밥상 앞에서 울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밥상 위에 행주를 올려놓으면 물에 빠져 죽는다.
 밥을 먹다가 손가락 짚고 한숨 쉬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
 뱀을 죽이다 말면 그 뱀이 살아나서 원수 갚으러 온다.
 뱀의 발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
 뱀이 감았던 호박을 먹으면 죽는다.
 뱀이 집안에서 나오면 초상난다.
 베개를 세워 놓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변소에 3번 빠지면 그 사람이 죽는다.
 변소에 빠진 사람이 떡 해 먹지 않으면 죽는다.
 복숭아 먹고 곡 목욕하면 죽는다.
 부모님 초상 때에는 머리를 빗지 않는다.
 부엉이가 울면 초상난다.
 부인이 머리를 풀고 문지방을 넘어서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북쪽 여우가 울면 그 동네에 초상난다.
 사람의 코피를 개가 먹으면 그 개가 죽는다.
 사람이 이어서 드러누우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죽었을 때 바느질하면 빨리하고 같이 가자고 한다(바느질 하는 사람도 빨리 죽는다.).
 산고(産苦)로 죽은 여자는 도중에서 세 번 내려놓지 않으면 나쁘다.
 산모는 벌레를 잡지 않는다. 아니면 아이가 죽는다.
 산후에 밖에서 흙을 파면 그 어린애가 죽는다.
 상가에 갔다 올 때에는 소금을 뿌려야 한다.
 상가에 갔던 사람이 바로 집으로 오면 불길하다.
 상여 나갈 때 길을 건너가면 불길하다.
 상여 메고 나갈 때 피가 흐른다고 하면 더 흐른다.
 상여가 나가는데 우물을 열어 두면 우물물이 흐려진다.
 상여를 메고 나가면서 무겁다고 하면 더 무거워진다.
 상주가 새 옷을 입으면 부모님 저승길이 어둡다.
 상주에게 죽음의 원인을 물어보면 안 된다.
 설날에 일하면 죽을 때 헛손질한다.
 세숫물에 손과 발을 같이 씻으면 부모가 같이 돌아가신다.
 소나무 순이 많이 죽으면 그 해 사람이 많이 죽는다.
 손가락을 입에 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손으로 턱을 괴면 부모님과 이별한다.
 손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손톱을 입으로 깎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손톱이나 발톱을 먹는 닭을 잡아먹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
 수의에 바늘을 넣으면 불길하다.
 신 끝에 불을 붙이면 죽을 때 말을 못하고 죽는다.

실패에 실이 하나도 없으면 부모님이 헐벗고 돌아가신다.
 아내가 이마에 손을 얹고 자면 남편이 죽는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지팡이를 주면 아들이 먼저 죽는다.
 아버지를 너무 따르는 아이는 수명이 짧다.
 아침에 여자가 다리를 빌려오면 그 집(빌려준 집) 딸이 죽는다.
 어린 아이에게 죽은 형제를 닭았다고 하면 머지않아 그 아이가 죽는다.
 어린애 낳고 초상집에 가면 해롭다.
 어린애 낳을 때 닭을 잡으면 그 아이가 부정 탄다.
 어린애가 누웠을 때 그 아이의 발을 빨면(간지럽게 하면) 그 아이가 죽는다.
 어린애가 변소에 빠지면 쉽게 죽는다.
 어린애가 실없이 땅을 파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어린애의 웃고름을 각각 다른 색으로 달아 주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
 어머니의 머리를 잘라서 딸에게 주면 딸이 죽는다.
 엄지손가락에 봉숭아물을 들이면 아버지는 오래 살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신다.
 여자가 밤에 빨래(방망이질)를 하면 동네 처녀가 죽는다.
 옷의 이를 돌이서 잡으면 사람이 죽는다.
 이른 봄에 흰나비가 집 안에 들어오면 그 집에 초상이 난다.
 이를 갈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다.
 이마에다 팔을 올리고 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이웃에 초상이 났을 때 빨래나 바느질하면 불길하다.
 이웃에서 초상이 났을 때 바느질하면 불길하다.
 임신 중에 있는 여인이 구렁이가 용이 되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유산한다.

임신 중인 여인이 구렁이가 용이 되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유산한다.
 임신한 여자가 고양이를 죽이면 고양이를 낳은 애를 낳는다.
 임종 날 김장하면 또 사람이 죽는다.
 자기 머리를 새끼로 묶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자는 사람의 얼굴에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이 죽는다.
 자벌레가 사람의 키를 넘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
 저녁에 방망이질하면 이웃 노인이 죽는다.
 정월 대보름날 신발을 하늘귀신이 신어 보면 그 배우자가 죽는다.
 정월에 난 강아지를 잡아먹으면 삼년 안에 죽는다.
 정월에 초상집 가면 불길하다.
 정초(음) 오일(午日)에 일하면 자기 집 말이 죽는다.
 제비가 대들보 안에서 집을 짓고 살다가 죽거나 이사하면 그 집이 망한다.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나쁘다.
 제사 음식을 먼저 먹으면 입술이 부르른다.
 제사 지낸 감주를 먹으면 귀 얇는다.
 제사 지낼 때 어린아이가 울면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
 제사를 사년간 안 지내다가 지내면 집안이 망한다.
 제삿날 바느질하면 조상의 영혼이 오지 않는다.
 제삿날 빨랫줄을 매면 귀신이 오다 돌아간다.
 쥐가 이불을 갠으면 상주된다.
 지계를 방문 앞에 세워놓으면 사람이 죽는다.
 참나무로 얼어맞으면 말라서 죽는다.
 참새가 집에 들어오면 사람이 죽는다.
 참외로 얼어맞으면 쉬이 죽는다.
 초상난 집과 등불을 같이 켜지 않는다.
 큰 나무를 베는 사람은 죽는다.

한 사람의 머리를 돌이 빚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

해진 뒤에 방망이질하면 동네 노인이 죽는다.

햇볕에 말리는 옷이 선풍(旋風)에 날아가면 그 옷의 임자가 죽는다.

중국어 금기어

百里行房者病，行房百里者死。

殯葬歸途中哭，還有喪事。

不給死人穿紅衣，否則死人會變成戾鬼。

不能讓狗看見家里的死尸，否則的話，家里會再死人。

辰日哭，有重喪。

出門在外，陽傘不能倒拿。

處女亡後，若出正門，再加喪。

穿喪衣忌孕婦見。

床底下不能用盆盛水。

春節忌喪家拜年。

村子里有喪事時，不能在村內巷子里唱歌。

打蛇不死蛇討命。

打竹鼠，家人遇難。

洞房睡空(新)床，不死丈夫也死妻。

冬至回門，克死公婆。

斷氣不抽氈，來世難轉人。

翻蓋房子寧向前趕一山，不向後趕一磚，往後趕死老人。

房屋大門與鄰家門窗相對，家中連續出現喪事。

房屋前院不栽桑。

房屋後院不栽柳。

房子的東南處不能單獨蓋小屋，要傷人或死人的。

房子的東南處不能挖墳頭(坑)，要傷人或死人的。

房檐滴水滴門楣，一年之內死一雙。

服喪忌理發。

服喪忌剃鬚。

複式房屋，忌死在樓上。

婦女坐在建房的梁檁上，家中有喪事。

給死者穿壽衣時，眼淚掉在死者身上，此人會瘋。

狗挖坑，埋主人。

公鷄與韭菜忌同食 食之危險。

花生與黃瓜忌同食 食之危險。 柿子與蚘蟹忌同食 食之危險。

黃鱔尾巴是尖的，是‘絕尾巴’。

火葬過程中加柴，還有人死亡。

火葬忌女人參加。

回家過重陽，死她婆婆娘。

家中有祭祀時，忌孩童大聲說話。

建房向西北，家破人亡。

見蛇非死即傷。

禁忌窺視僑中的新娘，看到會瞎眼或死亡。

禁忌婦女走路時抬頭挺胸，克子克夫。

祭拜祖先忌用不帶皮的肉、去搗鱗的魚，否則對祖先不恭，不孝。

禁忌提到凶禍一類的字眼，惟恐凶禍真正來臨。

即宅地忌往西邊擴大，會害于宅神，或有死亡事發生。

忌脚印入墓 表示陪葬。

忌近婚喪事。

忌給死者穿黑色衣服，死後會變成驢。

忌流淚于夭折之嬰兒屍上，否則再生者亦將夭折。

忌無春之年嫁娶。

忌死于原鋪上，預示不能馬上轉生。

忌死者屍體不僵，屍軟後代不發。

忌死在西北炕上。

忌死在腊月。

忌死在正月。

忌席上擺上三個菜，俗稱過去死囚徒斬首前吃法。

忌燒床鋪草。

忌雙日下葬，否則禍事成雙。

忌用手指星月，會有亡命之災。

忌院中種梅，俗以為梅花屬媚，主人沾花，克妻敗家。

忌以鐘送人。

忌將衣服反穿着，詛咒自己的親人死去。

忌在宅旁種栢樹。

忌諱晾曬干的衣服不疊好放一段時間就直接穿在身上，會變成鬼。

忌諱提及死亡事。

快子一長一短，表示三長兩短，預死亡。

蠟燭燃得不旺，或中途熄滅，新人有災。

老人臉發黑，死亡預兆。

老人用的碗打碎了，預示老人死亡。

老人抱孩童，孩童躲閃，死亡預兆。

靈桌上油炷燃油俗稱刺油，不要觸摸，否則身體會感導痛楚。

隣居有喪事時，舂米不能發出用力的聲音。

貓頭鷹夜叫，預示死人。

門前烏鴉叫，主有喪事。

母鷄司晨，家有喪事。

泥湫，鱔魚等沒有鱗的魚，因其形狀像龍，不能用祭祀。

弄倒香油瓶，家中有喪事。

女人頭腫，家中有喪事。

女人睡覺打鼾，克死丈夫。

女婿上床，家破人亡。

騎馬拜堂，家破人亡。

清明不回娘家，方死公婆。

清明不戴柳，命付黃泉。葱与蜜忌同食 食之危險。

茄子不能用作祭祀。

人家猫進自家門，有喪事。

三喪日下葬，還會再死兩人。

三朝洗人時忌爲嬰兒穿褲子，恐嬰兒夭折。

喪期三年內，食狗肉不吉利。

喪宴，吃完一道菜碗碟不能重迭，怕觸重喪彩頭。

燒酒與生姜忌同食 食之危險。

四六不通脊，通脊死閨女。

死人忌以裘皮之類做裝裹，恐怕來世托生獸類。

死者死于晚飯後，後代沒飯吃。

送葬忌諱從原路回來。

送葬忌諱回頭看。

送葬路上碰到相識者忌他招呼，恐被亡人得知，對被招呼者不利。

樹不能在立冬之前坎或截枝，不然傷人或死人的。

樹不能種在朝南窗前的正中央，不然要傷人或死人的。

未滿36歲死者，來世壽命更短。

下葬時穴底要平整，對兒子不利。

小兒百日內禁止剃髮，否則就有夭折的危險。

新娘入男家忌踏門檻，否則男家遇喪病之災。

新墳見新墳，必定還死人。

養魚者忌將魚去頭斬尾去鱗，俗信此舉會斷子絕孫。

衣服被畜生踩，非死及病。

已定的結婚日期忌改他日，改日死婆家人。

已婚男人正月洗脚死妻子，已婚女人正月洗脚死丈夫。

嬰兒夭折要將死嬰丟棄在水中，否則會變鬼作祟，不能再懷孕。

影子入落墓穴 為死人陪葬。

迎親途中怕出現不好的天氣，特別是打雷，夫婦中有一人要早死。

用堅韌物指人，堅韌物的尖會長長，致此人死。

用段子做壽衣，斷子絕孫。

有人離家忌掃地，否則離家人死亡。

雨打棺材蓋，子孫沒有被褥蓋。

魚子與豬肝忌同食 食之危險。

月蝕之子，行房則子母必遭凶險。

孕婦忌看喜喪事，切勿手觸棺木，否則嬰兒會夭折。

孕婦房內釘釘子，腹中胎兒夭折。

早剃胎髮新生兒會夭折。

在墳墓地便溺，暴死。

正月更換洗滌衣被，家中有喪事發生。

正月姑娘打裕褸，死舅舅。

正月不提親，提親死媒人。

正月十五，看婆家燈，死親爹，看娘家燈，死公公。

正月剃頭，死舅舅。

正月初一，拜年于床前，受拜人，年內病亡。

正月初一啼哭，今年有及病，故忌。

直呼長輩的名字，長輩折壽。

竹子開花，家破人亡
眾路相沖，家無老翁。
重喪日下葬，還會再死一人。